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크리트
사본의 전사(轉寫) — 「현전지」 (II)*

이영진**

I. 선행 연구와 논문의 요약

II. 십이연기관(十二緣起觀)으로부터 삼삼매(三三昧)로

III. 가장 오래된 사본은 항상 가장 오래된 내용을 의
미하는가?

IV. A transcription of the two oldest Sanskrit
manuscripts of *Daśabhūmikasūtram* in Nepal :

6th *bodhisattvabhūmi* part 2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46).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tatpum@gmail.com

요약문

이 논문은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크리트 사본의 전사(轉寫)―「현전지」(I)의 후속논문으로서, 앞선 논문이 (1)십중십이인연관(十重十二因緣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두 사본에 대한 전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논문은 이후의 “(2)삼삼매부터 (3) 10지 모두에 나타나는 정형구의 변주[變奏]”에 대한 전사가 그 범위를 이루고 있다. 각각 A와 B로 명명된 이 두 사본은 『십지경』의 이전 편집자들인 라더와 콘도가 사용하지 않은 사본들로서 각각 후기 굽타 문자의 동부 변종으로 쓰인 6-7세기에 속한 사본과 바르뚜라 네바리로 쓰인 13세기에 속한 사본이다. 우선 본 논문의 ‘I. 선행 연구와 논문의 요약’에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논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II. 십이연기관(十二緣起觀)으로부터 삼삼매(三三昧)로’에서는 본래 반야경류에서 이질적인 ‘십이연기관’과 ‘공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십지경』의 편찬자(들) 혹은 편집자(들)이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십이연기관’의 10번째 항목인 ‘[12연기지 각각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음에 순응하는 관찰(abhāvānulomaparīkṣā)’이 있었음을 밝히고, 산스크리트 사본을 포함한 자료들에서 이 ‘존재하지 않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악(改惡)되고 ‘생성(bhava)’으로 수정되었는지에 관한 필자의 가설을 세웠다. ‘III 가장 오래된 사본은 항상 가장 오래된 내용을 의미하는가?’에서는 A와 B 사본이 시기적으로 후대인 다른 사본들에 비해 내용상 후대의 서술을 가지고 있으며, A사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서술은 바수반두의 『십지경론』 등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주석적 요소가 첨가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A 사본에서는 ‘승가’와 ‘보살’과 ‘보살행’을 수식하는 ‘불퇴전 [보살의](avaivarttika)’와 ‘동료(sahāya)’ ‘광대한(vipula)’이 10지 각각에서 셋 모두가 나타나거나 혹은 셋 모두가 없거나, 셋 중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어 있는 등 그 서술의 양상을 달리한다. 이러한 사실은 본래 이러한 수식어가 여백 혹은 행간의 주석이었는데 이것이 필자 자에 의해 본문의 수정으로 이해되어 본문으로 삽입된 결과가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주제어 :

십지경, 현전지, 네팔 사본, 전사(轉寫), 십중십이인연관, 삼삼매, 여백 혹은 행간의 주석

I. 선행 연구와 논문의 요약

본 논문은 이미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크리트 사본의 전사(轉寫)-「현전지」(I)의 후속연구로서,¹⁾ 「현전지」 전사에 관한 완결판이다. 앞선 논문이 「현전지」 중 소위 “(1)십중십이인연관(十重十二因緣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두 사본에 대한 전사(transcription)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논문은 이후의 “(2)삼삼매-(3) 10지 모두에 나타나는 정형구의 변주[變奏]”가 그 범위를 이루고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는 앞선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선행연구에 관해 개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십지경』의 사본에는 이전 편집자들인 라더와 콘도가²⁾ 사용하지 않은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사본이 있다. 이 두 사본은 마쓰다(Matsuda)에 의하여 각각 MS A와 B로 명명되어³⁾ 1996년 팩시밀리 본으로 출판되었다.

2. 이 두 사본 중 MS A는 후기 굽타 문자의 동부 변종(an eastern

1) 이영진[2014]

2) 약호로는 각각 R과 K로서 Rahder[1926], Kondō[1936: reprint 1983]이다. 이 이외에 1967년 가장 마지막으로 바이드야(Vaidya)가 편집본을 내었지만, 이것은 사본에 기반을 두지 않고 콘도본을 참조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라더의 편집을 나름대로 수정하여 재발간한 것으로 논외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Yuyama[1996: 269-270] 참조. ; 푸쟁은 MS A와 2종의 파리에 보관된 데바나가리 사본 중 1종에 의지하여 「현전지」중 삼삼매의 일부까지를 편집하였다(De la Vallée Poussin[1913: 115-120]) 그리고 이 푸쟁의 편집을 라더는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그의 편집본에 실고 있다.(Rahder[1926: 47-52]) ; 이전 편집자들이 사용한 사본의 정도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p.11, n.3 : p. 13, n.12] 참조할 것.

3) MS A = NGMPP Reel No. A39/13(총 47폴리오)의 37폴리오 + A 38/5(총 22폴리오)의 12폴리오 = Matsuda[1996:2-57] ; MS B = NGMPP Reel No. A38/7(총 58 폴리오)의 42폴리오 = Matsuda[1996: 61-108]

variety of post-Gupta script) 혹은 소위 “실담”문자로 불리는 “Siddhamātrka”군의 한 종류의 문자로 쓰인⁴⁾ 6-7세기⁵⁾로 추정되는 네팔사본이고, MS B는 바르뚜라 네바리(Vartula - Nevāri)⁶⁾ 서체를 사용하여 필사된 12세기와 13세기로 추정되는 네팔사본이다.

3. 이 두 사본은 ‘계송과 산문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18세기 이후의 네팔 사본을 근거로 한 산스크리트 편집본들·5종의 한역⁷⁾·화엄부(Phal chen)에 속한 『화엄경』 속에 포함된 「십지품」의 티벳역⁸⁾과 달리 산문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4. 바수반두(Vasubandhu 世親)의 『십지경』 주석서인 『십지경론』의 한역과 티벳역⁹⁾에는 MS A와 B와 같이 산문 부분만을 인용하여 이를

- 4) YE[2008: 153] ; Siddhamātrka에 관해서는 Sander[2007:127-133] 참조.
- 5) 이 사본의 시기에 관해서는 학자별로 각기 차이가 있지만 그 견해를 종합하자면 대략 6-7세기에 해당한다. 각 학자들의 추정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pp. 12-13, n.7-n.10].
- 6) 이영진[2014: n.15]: “갈고리형 네팔 문자(Nepalese hooked script)라고도 한다. 벵달은 이 서체를 12세기부터 13세기에 유행하였다가 14세기에는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15세기에 다시 그 힘을 얻었다 16세기에는 사라졌다고 언급한다.” ;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Bendall[1883: xxiii]을 참조할 것.
- 7) 이영진[2014:n.19] : ①다르마락샤(Dharmarakṣa, 竺法護: 297 CE), 『漸備一切智德經』(『大正藏』10, pp.458上17-497中17), ②꾸마라지바(Kumārajīva 鳩摩羅什: 402-412 CE), 『十住經』(『大正藏』10, pp.497下1-535上20), ③붓다바드라(Buddhabhadra 佛駄跋陀羅: 418-420 CE), 『大方廣佛華嚴經』卷23-27(『大正藏』9, pp.542上1-578上4) ④식샤난다(Sikṣānanda, 實叉難陀: 695-699 CE), 『大方廣佛華嚴經』卷34-39(『大正藏』10, pp.178中26-210下24) ⑤실라다르마(Śīladharma 尸羅達摩: 753-790 CE), 『[佛說]十地經論』(『大正藏』10, pp.535上24-457下16) ; 이 중 시작계송이 없이 산문-산문의 요약계송만으로 이루어진 ①다르마락샤 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번역들은 시작계송-산문-요약계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8) 문헌 정보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p.15, n.20]을 참조할 것.
- 9) 이영진[2014: n.21]: 『十地經論』(『大正藏』26, pp.123中16-203中2); *sa bcu pa'i rnam par bshad pa*. Peking Tanjur[Reprinted by Otani Univ.], *mdo tshogs 'grel pa, ngi* 130b3-335a4 (vol.104, p.54-136) ; Derge Tanjur[TBRC] *mdo 'grel, ngi* 103b1-266a7.; Narthang Tanjur[TBRC] *mdo 'grel, ngi* 118a3-324 ; Kinsha Tanjur[TBRC] *ngi* 153b1- ; Cone Tanjur[TBRC] *ngi* 106b1-271a7

주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수반두가 MS A와 B와 같이 산문으로만 이루어진 『십지경』의 리센션(recension)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내용을 피하기 위해 계송에 대한 주석을 생략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¹⁰⁾

이러한 선행 연구와 MS A와 B의 전사(傳寫)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5. 그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그 존재가 보고 되었지만¹¹⁾ 활용되지 않았던 경전부(Mdo sde)에 속하는 독립경전으로서의 『십지경』 티벳역¹²⁾은 MS A 그리고 MS B와 동일하게 산문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바수반두의 『십지경론』에서 인용한 『십지경』의 티벳역은 『화엄경』 속에 포함된 계송과 산문이 결합된 「십지품」의 티벳역이 아니라 독립경전으로서의 『십지경』 티벳역과 일치한다.¹³⁾ 이는 『십지경론』의 티벳 번역가들이 경전부(Mdo sde)에 속하는 독립경전으로서의 『십지경』을 기반으로 하여 『십지경론』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바수반두가 MS A·B처럼 산문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던 『십지경』 사본을 사용하여 주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우리는 적어도 인도(네팔)와 티벳에서 『십지경』의 두 가지 리센션, 즉 (1)산문 부분으로 이루어진 리센션으로

10) Matsuda[1996: XX]

11) Yuyama[1996: 271, n.20]

12) 이영진[2014: p. 15, n.23]: 이 독립경전으로서의 『십지경』 티벳역은 이러한 문헌의 존재에 관해서는 보고가 되고 있지만,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TBRC를 통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Them spangs ma(서쪽) 그룹 Kanjur에 속하는 다음의 두 가지 Kanjur들이다. *‘phags pa sa bcu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Stog Kanjur[TBRC version], *mdo sde, ga 31b2-151b2* (vol. 54) ; Shey Kanjur[TBRC version] *mdo, ga 32a4-156b7* (vol.50). ; 이 두 버전 이외의 자료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n.25] 참조할 것.

13) 실례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19-32: 특히 표를 참조]. 여기에는 각각의 예문에 대한 화엄부(Phal chen)의 「십지품」티벳역과 경전부(Mdo sde)의 『십지경』 티벳역, 세친의 『십지경론』에서 인용된 경문의 티벳역이 비교되어 있다.

MS A·B·경전부(Mdo sde)에 속한 『십지경』 티벳역·『십지경론』의 티벳역과 보디루찌(Bodhiruci 菩提流支)·라트나마띠(Ratnamati 勒那摩提)의 한역과 (2)산문과 [요약]계송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리센션으로 후대 네팔사본들·화엄부(Phal chen)의 『십지품』 티벳역·5종의 한역의 기반이 되는 사본들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6. ‘II. 「현전지」 전사를 통해본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사본의 특징과 개선된 읽기의 제안’을 통해서는 주로 MS A와 B 그리고 독립경전으로서의 『십지경』 티벳역에 바탕을 두어 현존 산스크리트 편집본들과는 다른 제안을 하였다. 이 중 산스크리트 사본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MS A에는 MS B를 비롯한 산스크리트 자료 및 한역과 티벳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매우 독특한 단어들(단어)이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단어의 첨가는 물론 경전을 증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십지경론』의 주석과 비교할 때 ‘이 경전에 대한 주석이 경전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주석적 요소가 보인다.¹⁵⁾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와 선행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할 것이다.¹⁶⁾ 본문 ‘III 가장 오래된 사본은 항상 가장 오래된 내용을 의미하는가?’에서는 MS A만의 독특한 읽기에 집중하여 앞선 논의 중 6을 심화하고자 한다. ‘IV. A transcription of the two oldest Sanskrit manuscripts of *Daśabhūmikasūtram* in Nepal : 6th *bodhisattvabhūmi* part 2’에서는 앞선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2)삼삼매-(3)10지 모두에 나타나는 정형구의 변주[變奏]”에 대한 A와 B 사본을 있는 그대로 전사(轉寫)하는 디플로매

14) 이영진[2014: 10-16].

15) 이영진[2014: 21-27]

16) 이미 밝혔듯이(이영진[2014: 16-17, n.24]), 이러한 논문들은 MS A와 B를 포함한 『십지경』의 새로운 비판적 편집본(New critical edition)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십지경』 「현전지」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편집본은 지금 편집 중에 있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출판할 예정이다. 만약 이 기간 중 Stog과 Shey 이외의 독립적인 『십지경』 버전을 구할 수 있다면, 부록으로 「현전지」에 대한 티벳역에 대한 편집도 출판할 생각이다.

틱 에디션(Diplomatic edition)을 실을 것이다. 순서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II. 십이연기관(十二緣起觀)으로부터 삼삼매(三三昧)로’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로 판단되는 ‘십이연기’와 삼삼매로 대표되는 ‘공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현전지」의 편집자 혹은 편찬자의 시도를 다루어 볼 것이다.

II. 십이연기관(十二緣起觀)으로부터 삼삼매(三三昧)로

「현전지」의 구성은 (1)십이연기에 대한 10종의 설명 혹은 관찰(십중인연관) → (2) 삼삼매라는 해탈문(순서대로 ① 삼삼매의 나타남 → ②반야바라밀이라는 머무름의 현전 → ③백만 삼삼매의 현전) → (3) 10지 모두에 나타나는 정형구의 변주[變奏]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전’이라는 보살의 여섯 번째 단계(abhimukhī nāma śaṣṭhī bodhisatvabhūmiḥ)는 공성을 시작으로 하는 삼삼매와 반야바라밀이라는 머무름이 현전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 단계의 특징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다.¹⁷⁾

‘연기=공성’의 공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의 『근본중론송(Mūlamadhyamakakārikā)』¹⁸⁾에 익숙한 독자에게는 ‘십이연기의 관찰을 통해 공성·무상·무원의 삼

17) 바수반두는 반야바라밀이라는 머무름이 현전하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이름 한다고 해설한다. 반야경류에서 삼매의 일종으로 ‘반야바라밀이라는 머무름’과 삼삼매를 동일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영진 [2007:52-56] 참조.

18) 대표적으로 소위 “삼제계”로 통칭되는 『중론』에서 가장 유명한 계송인 24장 「관사제품」의 18번째 계송을 들 수 있다(Siderits and Katsura[2013: 277-278]). 『중론』의 번역서로는 예사룡의 새로운 『근본중론송』 산스크리트 편집을 반영하여 영역한 시데르츠와 카츠라의 저작이 매우 유용하다.

삼매가 일어난다’는 「현전지」의 표현은 그다지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나가르주나의 임무는 ‘인간만이 아니라(人無我) 모든 현상이 그 고유한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法無我)’는 『반야경』의 일반적인 선언에 대해 철학적 혹은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그렇지만 나가르주나가 변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반야경류 중 가장 고층(古層)의 사상을 담고 있다²⁰⁾고 평가받는 『팔천송반야경(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제 1장에는 삼삼매 각각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삼매에 대한 진술은 있지만²¹⁾ ‘연기(pratītyasamutpāda)’라는 용어나 이에 상응하는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연기=공성’이라는 나가르주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반야경류에서 공성은 본래 연기와는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필자에게는 「현전지」의 편집자(들) 혹은 편찬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화시켰는지,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십이연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질적인 요소인 삼삼매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호기심 혹은 궁금함이 있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실린 전사(轉寫)에 해당하는 ‘(2)-① 삼삼매의 나타남’과 관련한 MS A와 B의 읽기를 살펴보자:²²⁾

19) Siderits and Katsura[2013:1]

20) Schmithausen[1977]

21) 『팔천송반야경』 제 1장의 진술들이 삼삼매와 연관이 있고, 이 진술들을 공성·무상·무원삼매라는 삼삼매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 관해서는 이영진[2007:52-77] 참조; 또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자료(47-147 CE)인 『팔천송반야경』의 간다리 사본중 제 1장에 대한 편집과 이 간다리 사본에 해당하는 Lokakṣema(支婁迦讖 179-180 CE)의 한역 『도행반야경』의 영어 번역에 관해서는 Falk and Karashima[2012]를 참조하시오. 또한 Lokakṣema의 『도행반야경』 제 1장의 새로운 비판적 편집에 관해서는 Karashima[2011:1-37]을 참조할 것.

22) 이하의 용례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십지경 산스크리트 사본: A 28r6-30r4 ; B 31v4-34r3 ; C 103v2-109v1 ; D 82v4-87v3 ; E 48r3-50v7 ; F 21r8-22r15.

(2) 십지경 산스크리트 편집본: K pp. 101.15-106.11 ; P pp. 119.21-120.31 ; R 51.23-54.27 34 (L-S).

② A: tasyaivaṃ daśākāraṃ pratītyasamutp. .. paśyataḥ **prakṛtyā** pratyavekṣamāṇasya nirātmato niḥsatvataḥ nirjīvato niṣpudgalataḥ **svabhāvaśūnyataḥ** kāra-kavedakavirahitataḥ asvāmīkataḥ hetupratyayādhīnataḥ **svabhāvaśūny.** ∥ vi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tasyaiśaṃ bhavāṅgānāṃ svabhāvanirodhāyaṃta-vimokṣamukhapratyupasthānato na kiṃcid dharmmanimittam utpadyate | ato śyānimittam vi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 tasyaivaṃ śūnyatānimittam avatīrṇasya na kaści .. ∥ m asyāpraṇihitam vi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

B: tasyaivaṃ daśākāraṃ pratītyasamutpādaṃ pratyavekṣamāṇasya nirātmato nisatvato nijīvato niḥpudgalataḥ kāra-kavedakarahitataḥ asvāmīkataḥ hetupratyayādhīnataḥ **svabhāvaśūnyataḥ** **viviktaḥ** **asvabhāvataś** ca | **prakṛtyā** **pratyavekṣamāṇasya** śūnyatāvī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 tasyaiśaṃ bhavāṅgānāṃ svabhāvanirodhāyaṃtavimokṣapratyupasthānato na kiṃcid dharmanimittam utpadyate | ato śyānimittam vi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 tasyaivaṃ śūnyatānimittam avatīrṇasya na kaścid abhilāṣa utpadyate 'nyatra mahākaruṇāpūrvakam satva-paripācānād eva yasyāpraṇihitavi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

MS A(+PR)와 B에 근거한 편집: tasyaivaṃ daśākāraṃ pratītyasamutpādaṃ paśyataḥ **prakṛtyā**²³⁾ **pratyavekṣamāṇasya** nirātmato niḥsattvato nirjīvato niṣpudgalataḥ²⁴⁾ kāra-kavedakavirahitato 'svāmīkato hetupratyayādhīnataḥ **svabhāvaśūnyato**

(3) 십지경 한역 Ch[Dh] pp. 476下18-477中26 ; Ch[K] pp. 515中10- 516上09 ; Ch[B] pp. 559上22-559下20 ; Ch[Śn] pp. 194中23-195中05; Ch[Śdh] pp. 553下18-555上11.

(4) 십지경 티벳역 Tib[mdo] S mdo sde, ga 89a6-93b4 , Z mdo sde, ga 94a5-99b1 ; Tib[Phal] Derge[TBRC] phal chen kha 223a2-226a7.

(5) 십지경론 티벳역 Tib[DV] Derge[TBRC] mdo 'grel, ngi 202a3-208a4 ; 십지경론 한역 Ch[DV] pp. 170中13-173下13.

23) 띄어쓰기, 단다 등의 차이는 각주로서 표시하지 않았다; prakṛtyā] A, om. BPR

24) insert *svabhāvaśūnyataḥ* A (dittography)

vivikto 'svabhāvataś ca prakṛtyā pratyavekṣamānasya śūnyatā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tasyaiṣām²⁵⁾ bhavāṅgānāṃ svabhāvanirodhātavyantavimokṣamukhapratyupasthānato na kiṃcid dharmanimittam utpadyate, ato 'syānimittam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tasyaivaṃ śūnyatānimittam avatīrṇasya na kaścid abhilāṣa utpadyate 'nyatra mahākaraṇāpūrvakāt sattvapariṣānāt, evam asyāpraṇihitam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편집의 번역: 그가 이와 같이 10가지 측면을 지닌 연기를 보고 있을 때, [즉]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있을 때**, [부연하자면] [영속하는 실체들이라는] 아트만·사트바·지바·뿌드갈라가 없으며(i-iv), 행위자와 감수자를 결여하고 있으며(v), 주재자(主宰者)가 없으며(vi),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고(vii), **고유한 성질[自性]이 공한 것이고(viii), 원리(遠離 혹은 寂靜)한 것이고(ix), 고유한 성질이 없는 것이라는(x)** [10가지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있을 때**, 공성이라는 해탈로 향하는 관문이 일어난다.

[앞서 관찰하고 있었던] 이러한 [12연기의] 유지(有支)들의 고유한 성질이 소멸하여²⁶⁾ [공성이라는] 해탈로 향하는 관문에 완전하게 정착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다르마[들]에 대한 특징(nimitta 相)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보살]에게는 무상(ānimitta 無相)이라는 해탈로 향하는 관문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공성과 무상[이라는 해탈문]에 이미 들어간 그 [보살]에게는 대비(大悲)가 선행하는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바람[希求]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보살]에게는 무원(apraṇihita 無願)이라는 해탈로 향하는 관문이 일어난다.

MS A와 B를 보면 연기의 10가지 측면을 i~x 까지 tas 접미사

25) tasyaiṣām] AB, *tasyaivaṃ* PR

26) 이 번역은 다음과 같은 티벳역을 따랐다: de srid pa'i yan lag 'di dag gi rang bzhin 'gags zhing mnam par thar pa la shin tu nye bar gnas pas Tib ; 即此菩薩彼諸有支自性滅故, 究竟解脫現證住故 Ch[Śdh], 觀諸有支皆自性滅, 畢竟解脫 Ch[Śn], 滅此事餘不相續故 Ch[KB] 쿠마라지바와 붓다바드라의 번역은 '하나의 지분이 소멸함으로써 나머지 지분들이 어지지 못하기 때문에'로 보고 있다.

가 붙은 관점들과 동일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 대한 18세기 이후의 산스크리트 사본들(그리고 이에 근거한 콘도의 편집)과 티벳역과 한역들과 비교해보면, 이 들은 동일시 될 수 없을 것이다.

산문	Tib [mdo ·DV]	de de ltar rten cing 'brel bar 'byung ba la mnam pa bcur { <i>rab tu rtog</i> mdo ; <i>so sor rtog</i> DV} cing bdag med pa dang srog med pa dang gang zag med pa dang ngo bo nyid kyi stong pa dang byed pa po dang tshor ba po med par { <i>rab tu rtog</i> mdo ; <i>so sor rtog</i> DV} pa 'i tshe stong pa nyid kyi rnam par thar pa'i sgo skyes pa yin no
	Ch [DV]	是菩薩如是十種觀因緣集已。無我·無壽命·無衆生·自性空·離作者受者。如是觀時空解脫門現前生。
계송 + 산문	CDE FK	tasyaivaṃ {dvadaśākāraṃ CDEF ; daśākāraṃ K} pratityasamutpādaṃ <i>pratyavekṣamāṇasya</i> nirātmato niḥsatvato nirjīvato niḥpudgalataḥ svabhāvaśūnyataḥ kārakavedakarahitataś ca pratyavekṣamāṇasya śūnyatā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Tib [Phal]	de de ltar rten cing 'brel bar 'byung ba la mnam pa bcur rab tu rtog cing bdag med pa dang srog med pa dang gang zag med pa dang ngo bo nyid kyi stong pa dang rang bzhin gyis ²⁷⁾ byed pa po dang tshor ba po med par rab tu rtog pa 'i tshe stong pa nyid kyi rnam par thar pa'i sgo skyes pa yin no
	Ch [Sch]	菩薩以是十種行相觀諸緣起，由以無我·無壽命者·無數取趣 ²⁸⁾ ·自性空寂·離作者受者 觀緣起故，空解脫門而現在前。
	Ch [Śn]	佛子，菩薩摩訶薩以如是十種相觀諸緣起，知無我·無人·無壽命·自性空·無作者無受者，即得空解脫門現在前。

Ch [B]	是菩薩隨十二因緣，無我·無人·無衆生·無壽命者·離作者使作者·無主·屬衆因緣，如是觀時，空解脫門現在前
Ch [K]	爾時，菩薩隨十二因緣觀 無我·無衆生·無壽命者·無人·性空·離作者使作者·無主·屬衆因緣·無所有。如是觀時，空解脫門現在前
Ch [Dh]	彼觀此緣緣適起時，識當來事，悉當了之。無我·無人·無壽·無命·自然爲空·寂然恬怕·有所造作·因遭得報，遵空脫門。

표를 살펴보면, tas 접미사가 붙은 관점들의 숫자는 문헌별로 서로 다르며 (5, 6, 7, 8, 9)²⁹⁾ 10가지 측면과 그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더욱이 CDEF의 후대 네팔사본과 붓다바드라와 꾸마라지바의 한역(Ch[B], Ch[K])의 경우 ‘10가지 측면을 지닌 연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각각 ‘12 측면을 지닌 연기’와 ‘십이연기’이다. 따라서 ‘연기의 10가지 측면’은 나열된 열 가지 관점이 아닌 다른 것, 즉 삼삼매 이전에 열거한 십이연기에 대한 심중의 설명인 소위

-
- 27) A와 B에 나타난 ‘prakṛtyā’를 ‘pratyavekṣamānasya’가 아니라 ‘kāraṅvedakavirahitataḥ’에 걸쳐 해석한 것 같다.
- 28) 이는 niṣṭudgalataḥ의 번역어이다. pudgala를 數取趣 즉 “계속 반복해서 [5]취들에 달라붙기 때문에 ‘푸드갈라’이다(punaḥ punar gatiṣu liyata iti pudgalaḥ)”로 해석한 니룩따에 관해서는 이영진[2013:181] 참조.
- 29) 5= Tib[mdo]·Tib[DV]·Tib[Phal]·Ch[Śdh]·Ch[Śn]·Ch[DV]: Tib[mdo]·Tib[DV]·Tib[Phal]·Ch[Śdh]·Ch[Śn]에서는 A와 B의 ‘nirātmato niḥsattvato nirjivato niṣṭudgalataḥ kāraṅvedakavirahitataḥ svabhāvaśūnyataḥ’에서 niḥsattvataḥ가 생략되었고, Ch[DV]에서는 ‘niṣṭudgalataḥ’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 6= CDEFK : A와 B와 비교하자면 ‘asvāmikato hetupratyayādhīnataḥ svabhāvaśūnyato vivikto ‘svabhāvataḥ’에서 ‘svabhāvaśūnyataḥ’를 제외한 4이 다르며, 이 ‘svabhāvaśūnyataḥ’의 위치 또한 다르다.
- 7=Ch[B] : A와 B와 비교하자면 마지막 셋 즉 svabhāvaśūnyato vivikto ‘svabhāvataḥ’가 없다.
- 8= Ch[Dh] : A와 B와 비교하자면 kāraṅvedakavirahitataḥ와 asvabhāvataḥ가 보이지 않는다.
- 9= Ch[K] : A와 B와 비교하자면 viviktaḥ가 보이지 않는다.

‘십중십이인연관’을 지칭하는 것이다.³⁰⁾

이 tas 접미사가 붙은 관점들의 서술에 있어서 A와 B 사본은 시대적으로 다른 산스크리트 사본이나 티벳역 보다 앞서지만 내용상 후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빠른 두 한역인 다르마락샤(297 CE)와 꾸마라지바(402-412 CE)의 번역(약호로 각각 Ch[Dh]와 Ch[K])이 A와 B의 항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A와 B가 오히려 고층(古層)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A에서 ‘svabhāvaśūnya’가 두 번 필사된 것(dittography)은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첫 번째 ‘svabhāvaśūnya’가 나열된 항목들인 ‘nirātmato niḥsatvataḥ nirjīvato niṣpudgalataḥ svabhāvaśūnyataḥ kārakavedakavirahitataḥ’는 6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CDEFK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svabhāvaśūnya’가 나열된 항목 ‘asvāmikataḥ hetupratyayādhinataḥ svabhāvaśūny.’은 비록 이후의 글자들이 손실되었지만 B의 asvāmikataḥ이후의 항목과 Ch[K]의 ‘無主’이하의 항목과 순서가 일치한다. 따라서 “A는 본래 CDEF의 후대사본과 같이 ‘nirātmato niḥsatvataḥ nirjīvato niṣpudgalataḥ svabhāvaśūnyataḥ kārakavedakavirahitataḥ’의 6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좀 더 많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Ch[K]와 Ch[Dh]와 같은 문헌의 영향을 받아 ‘asvāmikataḥ’이후의 항목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A는 필사자가 이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svabhāvaśūnya를 두 번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B 혹은 B가 근거하고 있는 사본의 필사자는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A와 B 사본에서 이러한 첨가의 핵심은 ‘śūnyatā(空性)’의 동의어로 볼 수 있는 ‘svabhāvaśūnyato vivikto ‘svabhāvataḥ’과 ‘자연

30) 삼삼매의 앞에서 10종의 십이연기설을 정리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10종의 측면을 가진 연기(daśākāraṃ pratityasamutpādaṃ)’로 정의하고 있다. 이영진[2014: 45 III MS B 31v4 참고].

스럽게 혹은 저절로 [관찰할 때](*prakṛtyā [pratyavekṣamānasya]*) 일 것이다. 이 두 첨가는 서로 결합하여 (1)-1 ‘10종의 연기를 관찰하는 것’ = (1)-2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³¹⁾ 12지 연기 각 지분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공성)을 관찰하는 것³²⁾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는 (2)-① ‘12지 연기 각 지분의 자성이 소멸한(*bhavāṅgānaṃ svabhāvanirodhaḥ*) 공성삼매의 나타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즉 이러한 (1)-2의 첨가는 반야경류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연기{(1)-1}와 공성{(2)-①}을 조화시켜주는, 정확하게는 연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 공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1)-1 = (1)-2를 “자연스럽게” 성립시킬 수 있는 요소를 10종의 십이연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찾을 수 있다면, (1) 연기((1)-1 + (1)-2) → (2) 공성삼매를 시작으로 하는 삼삼매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흔히 ‘십중십이인연관’중 가장 마지막인 10번째 항목에서 ‘[12연기의 각 지분을] 비존재(*abhāva*)로 보는 것’인데, 이는 현재 산스크리트 편집본을 포함한 자료들에서 서로 다른 읽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우선 편집본의 내용을 인용해보자.

푸생과 라더의 편집본(P 119, R 51): *avidyāpratyayāḥ saṃskārā iti bhāvānulomaparīkṣā | evaṃ pariśeṣāṇāṃ | avidyānirodhāt saṃskāranirodha iti | kṣayavyayānulomaparīkṣā | evaṃ pariśeṣāṇāṃ |*

콘도의 편집본(K 101): *avidyāpratyayāḥ saṃskārā iti | bhāvānulomaparīkṣā evaṃ śeṣāṇāṃ | avidyānirodhāt saṃskāra-*

31) 화엄부에 속한 「십지품」 티벳역(Tib[Phal]) 에는 ‘rang bzhin gyis byed pa po dang tshor ba po med par’라 하여 A와 B에 나타난 ‘*prakṛtyā*’를 ‘*pratyavekṣamānasya*’가 아니라 ‘*kāraḥkavedakavirahitataḥ*’에 걸어 해석하고 있다.

32) 바수반두는 『십지경론』의 티벳역(Tib[DV] Derge 204b7)에서 “chos la bdag med par mthong ba ni ngo bo nyid kyi stong pa zhes gsungs pa’i phyir ro ||”라 하여 *svabhāvaśūnyataḥ*를 범무아(法無我)와 연관시키고 있다.

nirodha iti | kṣayavyayānulomaparīkṣā evaṃ śeṣāṇām |

편집본에 의거한 번역: [경전의]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하여 행(行)들이 있다”라고 한 것은 {존재 PR ; 생성 K}에 수순(隨順)하는 관찰이다. 나머지 [지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전의] “무명이 소멸함으로부터 행들이 소멸한다”고 한 것은 소멸하여 사라짐에 수순하는 관찰이다. 나머지 [지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10종의 12연기 관찰을 요약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중 10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은 P·R과 K의 편집본에서는 다음과 같다:

P 120, R 51 : **abhāva**kṣayatāpratyavekṣānataś (ca)

K 102 : **bhāva**kṣayatāpratyavekṣānataś (ca)

편집본에 의거한 번역: [12연기의 각 지분을] 각각 (비존재 PR ; 존재 K)와 소멸로 관찰하는 관점으로부터.

이와 같이 푸생·라더와 콘도는 12연기의 십종의 설명 중 10번째 항목에서는 각각 ‘bhāva’와 ‘bhava’로, 이 10번째 항목을 그대로 요약하는 항목의 요약에서는 ‘abhāva’와 ‘bhāva’로 서로 일치하지 않게 편집하고 있다. 더욱이 푸생과 라더의 각주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읽기는 조금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먼저 푸생은 벤달이 가지고 있는 사본(즉 MS A)과 파리의 두 데바나가리 사본 중 하나를 참조하여 「현전지」의 삼삼매까지를 편집하였는데 (각주 2참조), 굵은 글씨로 쓰인 ‘bhāva’와 ‘abhāva’는 모두 파리의 데바나가리 사본의 읽기를 따른 것이다. 각주를 살펴보면 벤달 사본(=MS A)에서는 전자를 ‘abhāva’로 읽고 있으며 후자는 손실되어 알 수 없다.³³⁾ 콘도의 경우는 전자인 ‘bhava’에 대해 주석이

33) P 119, n.6 ; P 120, n.1

없지만 후자인 ‘bhāva’에 대해서는 T 즉 Takakusu collection 사본에서는 ‘abhāva’로 읽고 있다고 각주를 달고 있다.³⁴⁾ 이를 종합하자면, 편집본과 이들이 근거한 사본에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비존재(abhāva) / 존재(bhāva) / 생성(bhava)의 서로 다른 읽기(vari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MS A와 B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자.

		10번째 항목	항목의 요약
산문	A	avidyāpratyayāḥ saṃskāra iti abhāvā nulomaparīkṣā	결락 (<i>lacuna</i>)
	B	avidyāpratyayāḥ saṃskāra iti bhavā nulomaparīkṣā	abhāvākṣayatā ca pratyavekṣaṇatāś ca
	Tib [mdo· DV]	ma rig pa'i rkyen gyis 'du byed mams zhes bya ba de ni srid pa 'i lugs { <i>dang mthun par mdo ; su 'byung bar DV</i> } yongs su brtag pa ste	med pas zad par rab tu rtog pa'o
	Ch [DV]	無明因緣行 是隨順 有 觀說 (無 明滅行滅 是隨順無所有盡觀說 餘亦如是。)	隨順 有 盡觀故
산문 + 계송	CDEF =K	avidyāpratyayāḥ saṃskāra iti bhavā nulomaparīkṣā	bhāvākṣayatā praty- avekṣaṇatāś ca
	Tib [Phal]	ma rig pa'i rkyen gyis 'du byed mams zhes bya ba de ni srid pa 'i lugs su mthun par brtag pa stel	srid pa 'i lugs su mthun par dang zad par 'gyur bar rab tu rtog pa
	Ch [Śdh]	無明緣行者，是隨順 有 觀	觀 有 盡故
	Ch [Śn]	又無明緣行者，是隨順 無所有 觀	無所有 盡觀故

34) K 102, n. 10

Ch [B·K]	無明因緣諸行生, 是隨順無所 有觀說	無所有盡觀
Ch [Dh]	而有輪轉	觀察無盡無所有盡

우선 10번째 항목과 그 항목의 요약은 서로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일치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1) abhāva(비존재) : Ch[B]·Ch[K]·Ch[Śn]
- 2) bhava(생성) : Tib[Phal]
- 3) bhava(생성) 혹은 bhāva(존재) : Ch[Śdh]·Ch[DV]³⁵⁾

또한 서로 불일치 하는 항목도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³⁶⁾

- 4) bhava - abhāva : B(+T)·Tib[mdo]·Tib[DV]
- 5) bhava - bhāva : C·D·E·F·K
- 6) bhāva - abhāva : P·R(+파리 사본)

이중 5) bhava-bhāva의 경우 ‘항목의 요약’은 계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운율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bhāva-abhāva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행이 있다’는 동일한 서술에 대해 ‘존재에 수순하는 관찰’과 ‘비존재에 대

35) Tib[Phal]과 같이 두 문헌 모두 bhava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Ch[Śdh]와 Ch[DV]에서는 「현전지」의 시작에 나타나는 10 평등성 중 10번째 항목인 ‘sarvadharmabhāva|bhāvādvayasamataya’를 각각 ‘以一切法有無不二平等’와 ‘十一切法有無不二平等故’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의 경우 ‘有’는 산스크리트 ‘bhāva’에 해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36) 이중 가장 연대가 빠른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Ch[Dh]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에 제외한다.

한 관찰'의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일단 고려의 대상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4)의 경우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상스까라들이 있다'는 서술은 유전연기(流轉緣起)의 방식이기 때문에 '[존재의] 생성(bhava)에 수순하는 관찰'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³⁷⁾ 또한 '[12지 지분들을] 각각 비존재(abhāva)로 관찰하는 것'은 앞선 공식 즉 "(1)-1 '10종의 연기를 관찰하는 것' = (1)-2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 12지 연기 각 지분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공성)을 관찰하는 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설명이라는 점에서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전연기(流轉緣起)의 방식에 입각하여 두 항목 모두를 '생성(bhava)'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1 12연기의 관찰= (1)-2 공성의 관찰'에 의거하여 '비존재(abhāva)'로 볼 것인가가 남아 있다. 필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 이질적인 연기((1)-1)와 공성((2)-①)을 조화시켜주는데 '[십이지 지분들을] 각각 비존재로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으로부터, 『현전지』의 편집자(들) 혹은 편찬자(들)이 채택한 용어는 '생성(bhava)'이 아니라 '비존재(abhāva)'라고 생각한다. 이는 서로 불일치하는 항목인 4), 5), 6)에서 두 번째 항목의 요약이 'bhava'가 아니라 'abhāva' 혹은 'abhāva'인 점은 역으로 『현전지』의 읽기가 본래 abhāva였음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A의 결락된 '항목의 요약'도 '산문만으로 이루어진 산스크리트 문헌'이라는 점에서 A와 가장 유사한 B사본과 데바나가리로 쓰인 파리(Paris) 사본을 근거로 본래 'abhāva'였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삼삼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팔천송반야경』 제 1장에서 12연기의 첫 지분이자 괴로움의 주요 원인인 avidyā(무명)를 '모든 다르마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집착하는 방식으로(즉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

37) 전재성[2013: 543] 특히 n. 1044 참고할 것.

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르마들을 avidyā(비존재)라고 말한다³⁸⁾라고 하여 ‘비존재(avidyamānatva)’로 해석하는 서술을 고려한다면, 「현전지」에서 ‘다르마에 해당하는 12지 각각의 지분을 [고유한 성질이라는 관점에서는(svabhāvataḥ)] 존재하지 않는 것(abhāva)’으로 관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서로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는 항목에 대해 불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악(改惡 corrupt)을 비롯한 사본들의 서로 다른 읽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났는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假說 hypothesis)을 세웠다.³⁹⁾

38)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ed. Mitra : 14.01-06] na hi te śāriputra dharmmās tathā samvidyante yathā bālaprthagjanā aśrutavanto 'bhiniṣṭāḥ | ... yathā śāriputra na samvidyante tathā samvidyante evam avidyamānās tenocyante avidyeti | tān bālaprthagjanā aśrutavanto 'bhiniṣṭāḥ | tair asaṃvidyamānāḥ sarvvadharmmāḥ kalpitāḥ |

39) 본래 이러한 작업가설은 박보람 선생님과 의견 교환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박보람 선생님은 필자가 전사한 MS A와 B 사본(+ 독립경전으로서의 Tib[mdo]중 Stog 버전(?))을 참조로 하고, CDEF의 후대의 사본을 제외한 거의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십지경(十地經)·십중십이인연관(十重十二因緣觀) 제10항목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쓰셨다. 이 중 ‘TV. 무소유진(無所有盡)인가, 유진(有盡)인가?’ 중 ‘3. 불일치의 추정’에서 abhāva[kṣaya](無所有[盡]) → bhāva[kṣaya](有[盡])으로 개정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고, 이 추측의 가장 커다란 근거로는 필자가 사용하지 않은 라더와 수사가 함께 편집한 『십지경』의 개송(Rahder and Susa[1931])과 콘도의 개송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사본이 abhāva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즉 개송의 경우 운율(metre)의 제한으로 인하여 abhāva → bhāva의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십지경』의 서술은 ‘abhāva’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 논문을 읽고 필자는 편집 당시에 생각했던 앞선 작업가설 중 (2)(3)(4)에 해당하는 abhāva → bhāva → bhava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현전지」의 편집자 혹은 편찬자(들)이 (1)bhava를 (2)abhāva로 바꾼 데에는 앞서 인용한 ‘avidyā를 다르마의 비존재’로 해석하는 『팔천송반야경』 제 1장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는 거친 생각을 메일로 전달하였다. 또한 박보람 선생님의 논문은 ‘무엇 때문에 「현전지」의 편집자 혹은 편찬자(들)이 본래 유전연

(1)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행이 있다’는 유전연기에 대한 서술로 「현전지」의 편집 이전에는 본래 bhavānulomaparīkṣā ([존재의] 생성에 수순하는 관찰)이었을 것이다.

(2) 「현전지」의 편집자(들) 혹은 편찬자(들)은 이를 소위 ‘십중십이 인연관’에 도입하면서 ‘십이연기의 관찰→공성을 시작으로 하는 삼삼매의 일어남의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 ‘모든 다르마들을 비존재 (avidyamānatva)로 보는’ 반야경 등의 영향을 받아 bhava를 abhāva로 바꾸었을 것이다. (1) abhāva : Ch[B]·Ch[K]· Ch[Śn] + A?)

(3) 유전연기에 익숙한 필사자에 의해 abhāva는 bhava 혹은 부정의 ‘a’가 탈락한 bhāva로 필사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항목의 요약에서는 abhāva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부정의 ‘a’만을 탈락시킨 bhāva로 개약(改惡)되었다. (4) bhava-abhāva : B(+T)·Tib[mdo]·Tib[DV], 5) bhava-bhāva : C·D·E·F·K, 6) bhāva-abhāva : PR(+파리 사본)}

(4) 서로 불일치하는 항목을 ‘유전연기’에 초점을 맞추어 모두 bhava로 교정하였을 것이다.(2) Tib[Phal] + 3) Ch[Śdh]·Ch[DV]}

그렇지만 마지막 (4)의 교정은 연기와 공성을 비롯한 삼삼매라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조화시킬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새로운 편집본에서는 두 항목 모두를 abhāva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에 상응하는 bhava를 abhāva로 바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박보람 선생님은 ‘IV.1 불일치의 내용’에서 “<무소유진> 계열의 경우, 무명으로부터 고통이 생성된다는 순관에서 각 항목[유지]은 본래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의 유지를 연으로 하여 임시로 생기한, 즉 연기법일 뿐이다. 따라서 순관에서 수순하는 유지는 자성을 결여한, 존재론적으로 ‘있는 바 없음’이다.”라고 연기와 공성의 동일시로 그 답을 구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일면 동의하지만 『반야경』과 그 주석인 『현관장엄론』 계열의 논서들을 전공하고 있는 필자에게 이 둘은 서로 이질적인 개념이기에, abhāva는 「현전지」의 편집자 혹은 편찬자(들)이 서로 이질적인 개념들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유전연기의 bhava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다.

III. 가장 오래된 사본은 항상 가장 오래된 내용을 의미하는가?

앞선 II장에서는 tas 접미사가 붙은 관점들의 서술을 통하여, 산스크리트 사본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두 사본인 A와 B가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들보다 내용상에 있어 후대의 서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4종의 한역을 제하고는⁴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사본인 MS A에만 나타난 용례들을 통하여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MS A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용례는 삼삼매 이후에서는 (3)10지 모두에 나타나는 정형구의 변주[變奏]에서 두 번 나타난다.

1. A: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 sunirmmito bhavati devarājah kṛtī prabhuh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ānām adhimānapratiprasrambhaṇāya*

A의 번역: 그 [현전이라는 보살의 여섯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40) MS A가 6~7세기, 좀 더 정확하게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에 필사되었다는 추정을 받아들인다면(이영진[2014: pp. 12-13, nn. 7-10, 특히 n.9를 참조할 것]), 『십지경』의 한역 중에서는 Ch[D](297 CE)와 Ch[K](402-412 CE)와 Ch[B](418-420 CE)가, 『십지경론』중에서는 보디루찌(Bodhiruci 菩提流支)와 라트나마띠(ratnamati 勒那摩提)의 번역(Ch[DV] 511 CE)이 A 사본보다 선행할 것이다. 물론 번역의 시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이 기반하는 필사본의 시기는 분명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화엄부의 『십지품』 티벳역(Tib[Phal])과 『십지경론』의 티벳역(Tib[DV])은 Ye shes de가 역자인 점을 감안하자면 9세기 초에 귀속될 것이다. 독립경전으로서의 『십지경』 티벳역(Tib[mol])은 그 번역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Stog과 Shey 버전 모두 18세기에 필사 혹은 만들어진 것이다.

보살은 대부분⁴¹⁾ [6육계천 중 다섯 번째 천에 사는] 천신들의 왕인 수니르밋따(樂變化, 妙化)가 되는데, 그는 중생들이 지니는 증상만(adhimāna⁴²⁾)을 멈추는데 유능하고(kṛtin) 자재(自在)하며(prabhu) 능력이 있으며(śakta) 적절하며(bhavya) 힘을 가지고 있다(pratibala).

번역에서는 kṛti이하의 다섯 단어들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 다섯은 모두 pratiprasambhāṇa의 4격과 더불어 ‘멈출 수 있는(being able to quit)’의 뜻을 나타내는 동의어로서, 유사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가장 첫 단어의 뜻을 제한하여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문장이 나타난 자료들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산문	B	yasyām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sunirmīto bhavati devarāja <u>kṛtī</u> <u>prabhuḥ</u> satvānām abhi- mānapratiprasambhāṇe
	Tib [mdo]	de la gnas pa'i byang chub sems dpa' ni phal cher lha'i rgyal po rab 'phrul du 'gyur te <u>byed pa dang</u> <u>ldan</u> zhing sems can mams kyi mngon pa'i nga rgyal rgyun gcod pa'i <u>gtso bor gyur pa dang</u>
	Tib [DV]	인용 ×
	Ch [DV]	若菩薩住此地中。多作化樂天王。所作自在善巧滅除衆生我慢。
산문 +	CDEF K	yasyām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 <i>sunirmīto</i> CDEF; <i>sunirmīto</i> KR} bhavati

41) A에서 손상된 음절은 다른 모든 산스크리트 자료들에서 이 단어를 bhūyastvena로 지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na를 첨가하여 읽을 수 있을 것이다.

42) 증상만을 abhimāna라고 읽는 다른 모든 자료와 달리 A가 adhimāna라고 읽는 것은 필사자의 실수가 아니라 혼성범어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강한 집착을 의미하는 ‘abhiṣvaṅga(혹은 abhiṣvaṅga)’의 경우 다른 모든 자료들이 이를 지지하는 반면 A는 sādhīṣvaṅgasya (26v6)로 abhi대신 adhi를 사용하고 있다.

개송	·R ⁴³)	{ <i>devarājah</i> DEF ; <i>davarājah</i> C} <i>kṛti</i> ... <i>prabhuḥ</i> <i>satvānām abhimānapratiprasrabdhaye</i>
	Tib [Phal]	de la gnas pa'i byang chub sems dpa' phal cher lha'i rgyal po rab 'phrul du 'gyur te sems can thams cad kyi lhag pa'i nga rgyal zhi bar bya ba la <u>mkhas shing</u> ... <u>mthu vod pa yin</u>
	Ch [Śdh]	菩薩安住於此地時，受生多作妙化天王，能作·自在·善化 有情令增上慢畢竟休息。
	Ch [Śn]	菩薩住此地，多作善化天王，所作·自在，(一切聲聞所有 問難無能退屈)，能令衆生除滅我慢
	Ch [B·K]	菩薩住是(地 B, 地中 K)多作善化自在天王，智慧猛 利，能破一切增上慢者
	Ch [Dh]	遵修住此，善能變化，設爲天王，其四大者，觀之降息， 獨步三界而無疇匹

표를 살펴보자면, A에 나타난 다섯 동의어 중 śakta·bhavya·pratibala는 A를 제외한 산스크리트 자료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역에서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Ch[Dh]를 제외한다면, Ch[B]와 Ch[K]에서는 다만 ‘~할 수 있는’의 ‘能’으로, Ch[Śn]은 각각 ‘kṛtin’과 ‘prabhu’에 해당하는 ‘所作’과 ‘自在’의 번역어를 가지고 있다. Ch[Śdh]와 Ch[DV]에서는 ‘所作’과 ‘自在’이외에 각각 ‘善化’, ‘善巧’의 번역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산스크리트 ‘kuśala(~에 능숙한)’의 번역어로 생각된다.⁴⁴⁾ 경전부의 『십지경』

43) 이전의 표와 달리 라더의 편집본(R)은 산문이 아니라 산문+개송에 속해 있다. 이것은 라더의 경우 푸생(P)이 MS A를 참조하여 편집한 삼삼매의 일부까지(A 28v6)는 이를 거의 그대로 자신의 편집본에 복사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산문+개송으로 이루어진 후대의 네팔사본을 이용하여 편집한다. 따라서 A 29v5-6에 속해있는 이 문장은 산문이 아니라 산문+개송의 범주에 속한다.

44) 그렇지만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들과 편집본에서 kuśala는 이 문장이 아니라 다음 문장과 연결된다 CDEF: kuśalaḥ satvās tebhyo {*bhīmānikadharmebhyo* CDE, *’bhīmānike dharmebhyo* F} *vinivarttayitum | asaṃhāryāś ca bhavati sarvaśrāvakapariprcchāyām*

티벳역(Tib[mdo])에는 ‘kṛtin’에 해당하는 ‘byed pa dang ldan pa’가 있지만 이를 ‘mngon pa’i nga rgyal rgyun gcod pa(증상만의 흐름의 멈춤)’과 연관시키지 않았으며 ‘prabhu’ 대신 ‘pradhāna’의 번역어로 생각할 수 있는 ‘gtso bor gyur pa’를 채택하였다.⁴⁵⁾ 화엄부의 「십지품」 티벳역(Tib[Phal])에서는 ‘kuśalaḥ pratibalaḥ’의 상당어구인 ‘mkhas shing mthu yod pa’로 번역하여 A사본에만 나타난 ‘pratibala’의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4지의 유사한 문장에 대한 바수반두의 주석을 살펴본다면, Tib[Phal]의 ‘mkhas [pa]와 ‘mthu yod pa’ 모두 ‘kṛtin’과 ‘prabhu’의 의미를 살린 번역어일 가능성과 Tib[mdo]의 ‘gtso bor gyur pa’ 역시 ‘prabhu’의 번역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지(地)의 유사한 문장

R 41 K 74 :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suyāmo bhavati devarājaḥ kṛtī prabhuḥ satvānāṃ satkāyadr̥ṣṭisamudghātāya

kuśalaḥ satvāṃ pratītyasamutpāde ‘vatārayitum | P ; kuśalaḥ satvāṃ tebhyo ‘bhimānikadharmebyo vinivartayitum | asaṃhāryās ca bhavati sarvaśrāvaka-pariprcchāyāṃ | kuśalaḥ satvāṃ pratītyasamutpāde ‘vatārayitum | R: kuśalaḥ satvāny ābhimānikadharmebyo vinivartayitum | asaṃhāryās ca bhavati sarvaśrāvaka-pariprcchāyāṃ kuśalaḥ satvān pratītyasamutpāde ‘vatārayitum | 후대 산스크리트 사본들과 편집본에 기반한 번역: [대부분 6옥계천 중 다섯 번째 천신들의 왕인 수니르밋따가 되는 보살은] 중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증상만과 관련된 요소(속성)들로부터 물러나게 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문들의 질문이 있을 때에도 동요하는 일이 없고 중생들로 하여금 연기를 이해하게 하는데 능숙합니다.

: A와 B는 첫 번째 kuśala가 있는 문장이 없다. A: asaṃhāryās ca bhavati sarvaśrāvaka-pariprcchāyāṃ kuśalaḥ satvāni pratītyasamutpāde avatārayitum ; B: susaṃhāryās ca bhavati | sarvaśrāvaka-pariprcchāyāṃ kuśalaḥ satvāṃ pratītyasamutpādam avataramṭī-nimittam ;

45) 아마도 ‘kṛtī sattvānāṃ abhimānapratiprasrabdhipradhānaḥ (유능하고 중생들의 증상만을 소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으로 환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후의 서술을 참고할 것.

번역: 그 [염혜(焰慧 arciṣmati)라고 하는 보살의 네 번째 단계]에서 머무는 보살은 대부분 [6육계천 중 두 번째 천에 거주하는] 천신들의 왕인 수야마(蘇夜摩)가 되는데, 그는 중생들이 지니는 유신견(有身見 satkāyadr̥ṣṭi)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유능하고(kṛtin) 자재(自在)하다 (prabhu).

바수반두의 주석: Tib[DV] Derge 187a7-187b1 ; sems can rnam
kyi 'jig tshogs la lta ba yang dag par 'joms pa la mkhas pa dang |
gtso bo yin zhing zhes bya ba la mkhas pa ni 'dir byed pa la
bya'o || gtso bo ni mthu'o ||

Ch[DV 162c27-29] : “所作·自在者。破諸衆生身見等事故” 是中作者所作故。自在者能力故。

티벳역에 기반한 번역: [『십지경』에서] “중생들의 유신견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능숙하고(mkhas pa 所作) 권위가 있다(gtso bo yin pa 自在)”고 하는 이 [문장]중에서 ‘능숙하고’라는 것은 ‘행위 (byed pa, 作)[에 능숙하고]’를 말하는 것이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힘[능력][이 있다](mthu [yod pa])’는 것을 [말한다]

필자의 번역에서 “‘능숙하고’라는 것은 ‘행위[에 능숙하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능숙하고’를 √kr의 명사형을 의미하는 byed pa로 주석하였다는 것은 ‘mkhas pa’가 ‘kuśala’가 아니라 ‘kṛtin’의 번역어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아마도 ‘행위에 유리한(kriyāyā hitaḥ kṛti)’이라고 이해되는 ‘kṛtin’을⁴⁶⁾ ‘능숙한’의 뜻을 중심으로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Tib[Phal]의 ‘mthu yod pa (=efficacious, having power)’ 역시 ‘gtso bo’를 의역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바수반두의 주석에서 ‘mthu (=prati)ḥala)’로 해석되는 ‘gtso bo’ 역시 ‘pradhāna(= chief, principle)’ 보다는 ‘prabhu(= mighty,

46) kṛta에 접미사 in이 붙은 ‘kṛtin’을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은 “ātmane hita ātmaninah” Kale[2007(reprint: 1972): 202] in 접미사 항목 중 (4) 참조.

powerful)’의 번역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보자면 A의 5가지 동의어 중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의 셋 (혹은 적어도 둘)은 다른 자료와는 공유하지 않는 MS A만의 독특한 표현이고, ‘prabhu’를 ‘[prati]bala’로 이해하는 바수반두의 주석을 참조하자면, A의 독특한 표현은 주석의 영향, 보다 정확하게는 주석이 본문으로 첨가된 경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⁴⁷⁾

MS A에서 이 문장은 유사한 형식으로 십지 모두의 서술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bhūmi	MS A	문장
1	12v3-4	+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jambūdvipeśvaro bhavati mahaiśvāryyādhipatyapratilabdho dharmmānurakṣī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ān mahātyāgena saṃgrahitum
2	16r3	yasyāṃ pratiṣṭito bodhisatvo bhūyastvena rājā bhavati cakravartī caturdvīpādhipatir dharmmādhipatyapratilabdhaḥ saptaratnasamanvitaḥ kr̥ti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ānāṃ dauḥśīlyamalavinivarttanāya
3	19v6-2 0r1	+++ t. ṣṭh. t. b. .. s. tv. <bhū>yastv.na indro bhavati devarājaḥ ṛḍaśādhipatiḥ kr̥ti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n. kāmarāhavinivarttanopā(y).(p)asa(m)hāraya
4	23r1-2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s)uy. .. bh. .. i +++ ṛ \\\ dṛṣṭisamu .. tāya
5	25v4-5	+++++++satvā bhūyas.ena samtūṣito bhavati devarājaḥ kr̥ti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h satvānām sarvvatīrthyāyatana vinivarttanopāyakuśalaḥ

47) 삼삼매 이전의 동일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MS A의 독특한 서술에 관해서는 이영진[2014: 19-27] II의 2.1과 2.2를 참조하시오.

7	34v2-3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vaśavartī bhavati devarājaḥ kr̥tī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ānām abhisama- yajñānopasaṃhāreṣu aparyyāta .. ∥∥∥ pari- pṛcchāsu
8	39v5-6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mahābrahmā bhavati sahasrādhpatiḥ abhibhūr anabhibhūto anvarthadarśī vaśiprāptaḥ kr̥tī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v. ∥∥∥ padeśopasaṃhāreṣv
9	44r3-4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mahābrahmā bhavati dviśāhasrādhpatiḥ abhibhūr an. ∥∥∥ r̥śī vaśiprāptaḥ vaśiprāptaḥ kr̥tī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ānām śrāvakaḥpratyekabuddhabodhisatvapāramitopade- śeṣv
10	52r3-4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 ∥∥∥ vakapratyeka- buddhabodhisatvapāramitopadeśeṣv

해당하는 단어들이 손실된 제 4지와 10지 그리고 필사자의 실수로 *kr̥tī*가 빠진 제 1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kr̥tī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라는, 필자의 추측에 따르면, 주석의 영향을 받은 용어들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MS A 보다 빠른 4종의 한역들과 비교할 때 이 용례들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주석의 영향인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에 인용하는 독특한 용례를 가지고 있는 MS A의 문장은 동일한 사본의 다른 지(地)에 대한 서술들과 비교했을 때, 주석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A: yac .a (k)īñcit karmmārabhate dānena vā priyavadyatayā
vā arthakriyayā vā samānārtha t. t. (sa)rv.ma .i ∥∥∥ hitaṃ

buddhamanasikāraiḥ dharmmamanasikāraiḥ **avaivarttika**(s).(ṃ)-(gh).manasikā.ai + .odhisatvamanasikāraiḥ **vi++**.odhisatva(caryyā-manasikāraiḥ pāramit). ... (s)ikāraiḥ bhūmimanasikāraiḥ balamanasikāraiḥ vaiśāradymanasikāraiḥ āveṇīkabuddhadharmmamanasikā.(ai) \\\ (vat) sa.vv.kāravar.petasasa.vvajñajñānamanasikāraiḥ

A의 경우 ‘**avaivarttika**’와 ‘**vi++**’를 제외한다면 다른 산스크리트 자료와 거의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여 충분히 복원할 수 있으며, ‘**vi++**’의 손상된 두 음절은 동일한 구절이 10지 각각에 서술되기 때문에 이 서술에 의지해 ‘**vipula**’로 복원할 수 있다(이하의 표 참조)

	<p>B</p> <p>yac ca kiṃcit karmārabhate dānena cāpriya-vadyatayā vā arthakriyayā vā manasikāraiḥ pā##### samānārthatayā vā tat sarvam avirahitaṃ buddhamanasikāraiḥ dharmmamanasikāraiḥ <u>samghamanasikāraiḥ</u> bodhisatvamanasikāraiḥ <u>bodhisatvacaryāmanasikāraiḥ</u> pāramitāmanasikāraiḥ bhūmimanasikāraiḥ balamanasikāraiḥ vaiśāradymanasikāraiḥ āveṇīkabuddhadharmmamanasikāraiḥ yāvat sarvākāravaropetasarvajñajñānamanasikāraiḥ</p>
<p>산문</p> <p>Tib</p> <p>[mdo]</p>	<p>sbyin pa'am snyan par smra ba'am don spyod pa 'am don mthun pas las gang ci rtsom yang rung ste de thams cad sangs rgyas yid la bya ba dang chos yid la bya ba dang dge 'dun yid la <u>bya ba dang</u> byang chub sems dpa' yid la bya ba dang <u>byang chub sems dpa'i spyod pa yid la bya ba dang</u> pha rol tu phyin pa yid la bya ba dang sa yid la bya ba dang stobs yid la bya ba dang mi 'jigs pa yid la bya ba dang sangs rgyas kyi chos ma 'dres pa yid la bya ba nas rnam pa thams cad kyi mchog dang ldan pa'i thams cad mkhyen pa'i ye shes kyi bar du yid la</p>

		bya ba dang mi 'bral ba {∅ S, <i>yid la bya ba Z</i> } yin te
	Tib [DV]	인용 ×
	Ch [DV]	所作善業·布施·愛語·利益·同事, 是諸福德皆不離念佛·念 法·念僧·念菩薩·念菩薩行·念波羅蜜·念十地·念不壞力· 念無畏·念不共佛法 乃至不離念一切種一切智智。
산문 + 계송	CD EF	yac ca kiñcit karmārabhate dānena vā priyavadatayā { <i>vārthakriyayā</i> CDE, <i>vārthi</i> ° F} vā samānārthatayā vā tat sarvam avihitam (<i>buddha-</i> <i>manasikāraiḥ</i> CE, <i>°kārai</i> D) ddharmamanasikāraiḥ <u>samghamanasikāraiḥ</u> (<i>bodhisatvamanasikāraiḥ</i> CDE, <i>om.</i> F) bodhisatvacaryāmanasikāraiḥ pāramitā- manasikāraiḥ (<i>bhūmimanasikāraiḥ</i> DEF , <i>°kārai</i> C) { <i>balamanasikāraiḥ</i> F. <i>°kāraiḥr</i> CDE} vaiśārya- manasikāraiḥ āveṇikabuddhadharmamanasikāraiḥ yāvat sarvākāravāropetasarvajñānāmanasikāraiḥ
	K ⁽⁴⁸⁾	yac ca kiṃ cit karmārabhate dānena vā priyavadatayā vārthakriyayā vā samānārthatayā vā tat sarvam avirahitam buddhamanasikāraiḥ dharmamanasikāraiḥ <u>samghamanasikāraiḥ</u> bodhi- sattvamanasikāraiḥ <u>bodhisattvacaryāmanasikāraiḥ</u> pāramitāmanasikāraiḥ bhūmimanasikāraiḥ bala- manasikāraiḥ vaiśāryamanasikāraiḥ āveṇikabu- ddhadharmamanasikāraiḥ yāvat sarvākāravāropeta- sarvajñānāmanasikāraiḥ
	Tib [Phal]	de sbyin pa'am ngag snyan pa'am don bsgrub pa 'am don mthun pas dge ba'i rtsa ba gang ci rtsom yang rung ste de thams cad ... sangs rgyas yid la bya ba dang chos yid la bya ba dang dge 'dun yid la bya ba dang byang chub

	sems dpa' yid la bya ba dang byang chub sems dpa'i spyod pa yid la bya ba dang <i>byang chub sems dpa'i sa yid la bya ba dang</i> pha rol tu phyin pa yid la bya ba dang stobs yid la bya ba dang mi 'jigs pa yid la bya ba dang sangs rgyas kyi chos ma 'dres pa yid la bya ba nas rnam pa thams cad dang ldan pa'i thams cad mkhyen pa'i ye shes kyi bar du yid la bya ba dang mi 'bral ba yin te
Ch [Śdh]	諸所作業, 或以布施 或以愛語 或以利行 或以同事, 此等一切悉皆不離佛作意·法作意·僧伽作意·菩薩作意·菩薩行作意·到彼岸作意·諸地作意·佛力作意·無所畏作意·佛不共法作意, 乃至不離一切行相妙相應一切智智作意。
Ch [Śn]	布施·愛語·利行·同事 如是一切諸所作業, 皆不離念佛, 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一切智智。
Ch [B]	有所施作布施·愛語·利益·同事, 皆不離念佛, 不離念法, 乃至不離念具足一切種智
Ch [K]	有所施作布施·愛語·利益·同事, 皆不離念佛·念法·念諸菩薩, 乃至不離念一切種智。
Ch [Dh]	所行德本, 布施·愛敬·利益·等利 化衆生心, 不捨佛道至皆具足念一切智

A의 복원에 기반을 둔 번역: [현전이라고 하는 보살의 여섯 번째 단계에 머무는 보살은] 보시(布施) 혹은 애어(愛語 priyavadyatā) 혹은 이행(利行 arthakriyā) 혹은 동사(同事 samānārthata)로써⁴⁹⁾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위는 모두 ①부다(佛)·②부다의 가르침(法)·③ 불퇴전 [보살의] 상가(samgha 僧)·④보살·⑤보살의 광대한 행위·⑥

48) R는 이 반복되는 문장을 생략하였다.

49) 이러한 4섭법(攝法 samgrahavastu) 중 마지막 셋은 차례대로 '상냥한 말', '타인을 위한 행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종교적 목표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바라밀·⑦ [보살의 10] 단계[地]·⑧[10]력·⑨[4] 두려움이 없음[無所畏]·[붓다의 18] 고유한 속성[不共法]을 결여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막으로 일체지자가 지닌 모든 최고의 측면을 지닌 모든 것을 아는 [세 종류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결여하지 않습니다.

A에서는 이와 같이 다른 자료들에는 없는 ③saṃgha와 ⑤caryā를 수식해주는 ‘avaivarttika’와 ‘vipula’라는 형용사를 갖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꾸마라지바가 ④보살에 대한 생각’을 ‘念諸菩薩伴(보살 동료들에 대한 생각)’이라 하여 ‘[sarva] bodhisattvasahāyamanasikāraiḥ’를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④항목에 ‘sahāya’가 추가된 것은 6지 이외의 다른 지(2·3·7·9·10지)의 서술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bhūmi	MS A	문장
1	12v4-6	... ⁵⁰⁾ saṃghamanasikāraiḥ sahāya bodhisattvamanasikāraiḥ bodhisattvacaryyāmanasikāraiḥ ...
2	16r4-5	yac ca kiñcit karmmārabhate kāyavānmanobhiḥ dānena vā ... avavarttikasaṃghamanasikāraiḥ sahāya bodhisattvamanasikāraiḥ vipula bodhisattva<caryyā>manasikāraiḥ ...
3	20r1-2	... avaivarttika saṃghamanasikāraiḥ sahāya bodhisattvamanasikāraiḥ vipula bodhisattvacaryyāmanasikāraiḥ ...
4	23r2-3	... avaivarttika saṃ(gh)amanasikāraiḥ bodhisattvamanasikāraiḥ vipu.. \\\ kāraiḥ pāramitāmanasikāraiḥ ...
5	25v5-6	... saṃghamanasikāraiḥ bodhisattvamanasikāraiḥ bodhisattvacaryyāmanasikāraiḥ ...

50) ‘...’은 생략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7	34v3-4	... avaivarttika saṅghamanasikāraiḥ sahāya - bodhisatvamanasikāraiḥ vipula bodhisatva- caryyāmanasikāraiḥ ...
8	39v6-7	... saṅghamanasikāraiḥ bodhisatvamanasi- kāraiḥ \\\ mitāmanasikāraiḥ ...
9	44r4-5	... dharmmamanasikāraiḥ .. \\\ ..nasikāraiḥ sahāyan abodhisatvamanasikāraiḥ vipula bodhi- satvacaryyāmanasikāraiḥ ...
10	52r5-6	... tat sarvvaṃ avi(ra) \\\ ..dhisatva- manasikāraiḥ sahāya bodhisatvacaryyāmanasi- kāraiḥ ...

10지 각각에 나타난 동일한 서술은 첫째 ③·④·⑤ 세 항목에 차례대로 **avaivarttika**·**sahāya**·**vipula**가 첨가되어 있는 군(=2·3·7지+9지?), 둘째 세 항목 모두에 앞서의 첨가가 보이지 않는 군(=5지+8지?), 셋째 세 항목의 첨가 중 **sahāya**만 제외된 군(4·6지), 넷째 **sahāya** 한 항목만 첨가되어 있는 군(=1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따라서 앞선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가 [적어도 판독 가능한] 모든 십지의 서술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첫 번째 예와는 다르다. 그리고 세 항목 모두에 첨가가 없어 꾸마라지바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료와 공통되는 두 번째 군(=5지+8지?)이 있는 한, MS A는 본래 이 두 번째 군과 같이 서술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③·④·⑤ 세 항목 모두에 첨가가 있는 첫 번째 군(=2·3·7지+9지?)으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sahāya** 한 항목만 제외되거나 혹은 첨가된 세 번째(=4·6지)와 네 번째 군(=1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필사

51) 10지의 경우는 다른 부분이 손실되었고 더욱이 ‘**sahāya**’가 ④항목이 아닌 ‘**vipula**’가 붙어야 하는 ⑤‘**sahāya**bodhisatvacaryyāmanasikāraiḥ’에 첨가된 필사자의 오류가 보인다. 따라서 어느 군에 속하는지에 대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한다.

자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필자는 MS A의 「현전지」 전체와 (3) 10지 모두에 나타나는 정형구의 변주(變奏)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MS A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못했지만 필자에게는 MS A의 필사자가 다른 사본들(BCDEF)에 비하여 월등히 정확하게 필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MS A 필사자의 오류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산스크리트 사본의 여백의 활용이 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스크리트의 사본의 여백(margin)과 행간(行間)의 역할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필사를 건너 뛴 단어나 문장 등의 삽입과 오류에 대한 수정을 담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본을 실제로 학습 교재로 사용한 사람들의 주석을 담고 있는 역할이다. 이러한 주석은 때때로 본문에서 건너 뛴 단어나 문장 등의 삽입으로 오해되어 혹은 의도적으로 다음 필사자에 의해 본문으로 삽입되어 텍스트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⁵²⁾ 필자는 MS A가 기반하고 있는 사본이 이러한 여백 혹은 행간의 주석을 가졌으며 MS A의 필사자가 이를 본문의 단어나 문장 등의 삽입으로 오해하여 본문으로 필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전 논문⁵³⁾과 현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MS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서술 모두 이러한 여백 혹은 행간 주석의 삽입이 아닐까 추측한다.⁵⁴⁾

52) Philipps-Universität Marburg의 Dr. Camillo Formigatti는 여백과 행간의 주석이 어떻게 텍스트를 변형시켰는가에 관한 연구인 “In the margins of the text: Annotated manuscripts from Northern India and Nepal”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http://www.tantric-studies.uni-hamburg.de/projects/indian-mss-annotations/> 를 참조하시오.

53) 이영진[2014: 19-27] II의 2.1과 2.2를 참조.

54) 물론 이는 「현전지」를 포함한 모든 지에 대한 MS A의 서술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의 과제 중 하나는 『십지경』 전부의 MS A에 나타난 독특한 서술-필자의 이해에 의하면 여백 혹은 행간 주석의 삽입-을 모아 『십지경론』 등의 주석서와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MS A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주석을 달았던 사람(들)에 대한 학문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각각의 첨가된 항목,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여백 혹은 행간 주석의 삽입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MS A의 2지에 관한 서술에는 ‘**kāyavāñmanobhiḥ**’라는 다른 자료들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복합어가 보인다. 이는 “[더러움을 떠남(vimalā)이라고 하는 보살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무는 보살은] 보시, 혹은 애어, 혹은 이행, 혹은 동사로써 **즉 / 혹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라 하여 4섭법(攝法 saṃgrahavastu)을 주석하거나 4섭법 이외에 ‘arabhate(행하다)’와 연결된 또 하나의 문장 요소를 추가하는 주석으로 보인다.

③**불퇴전 [보살의]** 상가(avaivarttikasaṃgha)는 전통적으로 불·법·승 삼보 중 승을 ‘수다원향·과’로부터 ‘아라한향·과의 4쌍 8배로 이루어진 모임인 ‘성인들의 상가(āryasaṃgha)’로 정의하였는데 이를 대치하는 새로운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산스크리트 논서에서는 주로 25,000승 반야경의 주석서인 『현관장엄론』의 주석과⁵⁵⁾ 탄트라 논서들⁵⁶⁾에서 나타난다. 산스크리트 경전에는 현재

55) 우선 Ratnākaraśānti가 지은 『현관장엄론』개송에 대한 주석서인 Sāratamā[ed. Jaini: 84]에 ‘avaivarttikasaṃghaḥ’라는 정확히 일치하는 용례가 나타난다. 또한 Haribhadra가 『현관장엄론』개송과 동시에 8,000승 반야경을 주석한 Abhisamayālaṅkāra[ed. Wogihara: 211]에는 ‘āryāvaivartikābodhisattvasamūhaḥ saṃghaḥ(상가란 성스러운 불퇴전 보살 등의 모임이다)’로 주석하고 있다. Ārya Vimuktiṣeṇa의 주석은 『현관장엄론』에 대한 현존하는 주석 중 가장 오래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다: “... tatra saṃgharatnam avaiivartikabodhisattvasaṃgho ‘tra veditavyaḥ | te ca pratipannakaphalasthabhedena catvāraḥ puruṣayugā bhavanti | tatsaṃgrhitās caṣṭamakādayaḥ pudgalāḥ | ([앞선] 인용에서 보석과 같이 귀중한 상가는 불퇴전의 보살상가라고 이 경우에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에 근접하는가 혹은 과에 있는가의 차이를 지닌 4 사람의 짝(四雙)이 된다. 그리고 8번째 푸드갈라 [즉 성문 전통의 수다원향] 등이 그 [4쌍에] 포함된다.” Abhisamayālaṅkāravṛtti[ed. Pensa: 39]; 『현관장엄론』의 주석에 나타나는 ‘20 불퇴전 보살승가’에 관해서는 Apple[2008]을 참조하시오.

56) 대표적으로 Durgatipariśodhanatantra[ed. Skorupski: 120] : evaṃ pramukhair **avaivartikabodhisattva**mahāsattvasaṅghair anantāparyantaiḥ satkṛtaḥ | ; Mañjuśrīmūlakalpa[ed. Vaidya: 407] :

까지 조사한 바로는 『현관장엄론』의 과단 분류에 의해 새로이 편집된 후대 네팔사본을 근거로 한 25,000송 반야경⁵⁷⁾과 『십지경』과 동일하게 『화엄경』의 일부로 편집된 Gaṇḍavyūhasūtra, 그리고 Bodhisattvaprātimokṣasūtra에서 각각 한 차례씩 나타난다.⁵⁸⁾ 그렇지만 이 용어가 『현관장엄론』의 주석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과 (1)십중십이인연관(十重十二因緣觀)에서 나타난 MS A의 독특한 서술 중 두 번째에서⁵⁹⁾ 『반야경』류의 ‘머무르지 않는 방식으로(혹은 결과로서) 머문다’를 연상시키는 서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이 첨가는 『현관장엄론』 주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sahāyabodhisattva(동료보살)와 세 번째 ‘bodhisattvacarya’는 아마도 바수반두의 제1지의 동일한 문장에 대한 주석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Ch[DV: 145a1-3] 二者 同法念。念諸菩薩故。三者功德念。念自身他身菩薩行自體轉勝故。

Tib[DV: Derge 135b4-5]: chos mthun pa yid la bya ba ni | byang chub sems dpa' yid la bya ba gang yin pa'o || yon tan yid la bya ba ni bdag dang gzhan gyi byang chub sems dpa'i spyod pa rang bzhin dang bcas pa'i rim pa yid la byed pa gang yin pa'o ||

티벳역 번역: 동일한 ~(/속성/가르침)를 지닌(chos mthun pa 同法 : * sahadhārmika) [보살]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보살에 대한 생각’

avaivartikasaṅgho vai bodhisattvāgrajodbhavet // 47.33 cd //

57)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1-1[ed. Kimura 89] ‘itidam **avaivartikabodhisattvasaṅgha**paridīpanam’

58) Gaṇḍavyūhasūtram[ed. Vaidya: 81] **avivartyasaṅgha**samavasaraṇā mama sabhāgacaritā bodhisattvaḥ | ; Bodhisattvaprātimokṣasūtra[ed. Dutt] ā bodhimaṇḍaṇiṣadanād **avaivarttikabodhisattvasaṅgham** śaraṇaṃ gacchāmi gaṇāṇāṃ śreṣṭham ||

59) 이영진[2014: 21-27]

을 말한다. 속성(yon tan 功德)에 대한 생각이란 자신과 타인의 보살행이 고유한 특성⁶⁰을 갖추고(rang bzhin dang bcas pa 自體 : *sasvabhāva) [끊임없이] 이어진다(rim pa 轉勝 ; *krama)는 것에 대한 생각이다.

이 경우 sahadhārmika의 번역어로 생각되는 ‘chos mthun pa, 同法’은 같은 종교 혹은 가르침 혹은 ~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에 ‘동료’를 의미하는 ‘sahāya’와 그 뜻이 서로 통한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 이외의 보살들에게 (혹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보살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혹은 단계별로 발전한다’는 것은 광대한(vipula)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제 2지의 ‘kāyavāriṃmanobhiḥ’를 비롯한 이 세 독특한 용어들은 『십지경』 자체보다는 주석서의 영향으로 부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Ⅲ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

1. 시대적으로 가장 빠른 두 사본인 MS A와 B에는 내용상 후대로 볼 수 있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2. 특히 MS A에는 다른 자료들에서 서술되지 않는 독특한 용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후대에 사본의 여백 혹은 행간에 쓰였던 주석이 본문으로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외에도 MS A와 B를 참조한다면, 산스크리트 편집본들의 오류를 바로 잡거나 그 읽기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지면 관계로 이 부분은 현재 편집중인 「현전지」의 새로운 비판 편집으로 미루어 두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60) 大竹晋(Otake, Susumu)[2005: 215, n.21]에 따르면, 고유한 특성은 바라밀(pāramitā)들을 의미한다.

IV. A transcription of the two oldest Sanskrit manuscripts of *Daśabhūmikasūtram* in Nepal : 6th *bodhisattvabhūmi* part 2.

⊗	alaṅkāra
○	string hole
.	a part of <i>akṣara</i> that is illegible
..	an illegible <i>akṣara</i>
+	a missing <i>akṣara</i>
()	damaged but readable
< >	insertion between lines or in margin
\\ \\	leaf broken off here
*	insertion mark
×	cancellation mark
character	cancelled character(s)
#	a gap filling mark
=	a gap-filling mark appeared as a colon before a string hole or at the end of the line in the MS B.
<i>ac</i>	<i>ante correctionem</i> = before correction
<i>pc</i>	<i>post correctionem</i> = after correction

IV.1. MS A (=NGMPP A 39/13 + A 38/5)

[28v1] tasyaivaṃ daśākāraṃ pratīyasamutp. .. paśyataḥ prakṛtyā pratyavekṣamānasya nirātmato ○ niḥsatvataḥ nirjīvato niṣpudgalataḥ svabhāvaśūnyataḥ kārakavedakavirahi<ta>taḥ⁶¹⁾ asvāmikataḥ hetupratyayā(dhī)○nataḥ (svabhāvaśūny). \\ \\

[28v2] v(i)mokṣamukham ājātam bhavati tasyaiśāṃ bhavāṅgānām svabhāvanirodhāyaṃtavimokṣamukhapratyupasthā○nato na kiṃcid

61) °virahitataḥ] A^{pc}, °virahitaḥ A^{ac}

dharmanimittam utpadyate | ato śyānimittam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tasyaivaṃ sūnyatānimitta○m⁶²⁾ avatīrṇasya na
 kaści .. \\\

[28v3] m asyāpraṇihitaṃ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sa
 imāni trīṇi vimokṣamukhāni bhāvayann ātma○parasamjñāpagataḥ
 kārakavedakasamjñāpagataḥ bhāvābhāvasamjñāpagato bhūysyā
 mātrayā mahākaruṇāpura○skṛtaḥ⁶³⁾ prayujyate | \\\

[28v4] t saṃskṛtaṃ pravarttate | viśaṃyogān na pravarttate
 sāmāgryāt saṃskṛtaṃ pravarttate | viśaṃgryān na pravarttate ○
 haṃta vayam eva bahudoṣaduṣṭaṃ saṃskṛtaṃ viditvāsya
 saṃyogasyāsyāś ca sāmāgryā vyavacchedaṃ kariṣyāmo na
 cātyaṃtopa○śamaṃ sarvvasaṃskā(r). \\\

[28v5] saṃskāragataṃ bahudoṣaduṣṭaṃ svabhāvarahitaṃ
 anutpannāniruddhaṃ prakṛtyā pratyavekṣamāṇasya mahā○
 karuṇābhīnirhārataś ca | satvakāyānutsargataś ca asaṃga-
 jñānābhīmukho nāma prajñāpāramitāvihāraḥ āmu○khibhavaty a(va)
 .. \\\

[28v6] gāhārakāṃś ca pratyayān upacinoti upasaṃharati na ca
 saṃskṛtasaṃvāseṇa saṃvasati s.abhāvopaśa○maṃ ca
 sarvvasaṃskārāṇāṃ pratyavekṣate na ca tatrāvatiṣṭhate
 bodhyaṃgāni paripūritatvāt | tasyāsyāṃ abhīmukhyāṃ bodhi○
 satvabh(ū) .. \\\

[28v7] paramārthaśunyatā ca | mahās(u)nyatā ca |
 saṃprayogaś(ūn)yat(ā) ca (a)(bhi).ir.ā + ..nyatā ca yathā(vada)-
 vi(k).lp.(ś).(n).(tā ca) | (sāvek).a(ś). .. ā .. * i i r.o .. i i r.o
 ++++ .. ○ i \\\

[29r1] (evam ān).(m).(ttamu) .. (s). ā(dhis).ha(sr).ṇ.
 apraṇihitamukhasamā○(dhiś). hasrāṇy āmukh(i)bhava(m)ti + .y.
 .ū(yasyā mātrayā asyāṃ abhīmukhyāṃ bodhis). .v. ū (m).
 sth(i)tasya bodhisatva○sya abhedyāśayatā ca paripūryate
 niyatāśayatā ca kalyāṇāśayatā ca gambhīrā .. \\\

62) sūnyatā°] A^{DC}, śunyatā° A^{ac}

63) mātrayā mahāka°] A^{DC}, +++++ka° A^{ac}

[29r2] apratyudāvartyāśayatā ca | apratiprasabdhyāśayatā ca
vimalāśayatā ca anantāśa..tā ca jñānābhi○lāśāśayatā ca |
upā(yapra)jñāsamprayogāśayatā ca paripūryate tasyaite
bodhisatvāśayāḥ svanugatā bha○vaṃti tathāgatabodhau
apratyudāvarttanīyavīryas ca bhavati sarvvarapravādibhi+
(sama)..srta. (c). (bh)... ∥∥

[29r3] jñānabhūmiviniṣṛtaś ca bhavati śrāvaka-
pratyekabuddhabhūmibhyaḥ ekāntikaś ca bhavati buddhajñānā-
bhīmukhatāyāṃ ○ asaṃhāryas ca bhavati sarvvarakle-
śasamudācāraiḥ supraṭiṣṭhitaś ca bhavati bodhisatvajñānālokatāyāṃ
supari○bhāvitaś ca bhavati śūnyatānimittapraṇihitadharmma-
samudācāraiḥ saṃprayuktaś ca bhavati upāyapra(jñ). ∥∥

[29r4] v(i)cāraiḥ vyavatīrṇas ca bhavati bodhipakṣikadharmmā-
bhīnīrharaiḥ tasyāśyām abhī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
sya bodhisatvasya praññāpāramitāvihāro tīrīkṭatama ājāto bhavati
tikṣṇā cānulomikī kṣāṃtir eṣā dharmmāṇaṃ ya○thāvad
anulomanatayā avilomanatayā tasyāśyām abhīmukhyāṃ bodhi-
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 ∥∥

[29r5] .. bahavo buddhā *<ā>bhāsam⁶⁴) āgacchanti |
audārikadarśanena prañidhānabalena ca bahūni buddhaśatāni bahūni
○ buddhasahasrāṇi *<bahūni bu hasrāṇi> bahūni
buddhaniyutaśatasahasrāṇi | bahvyo buddhakoṭyaḥ bahūni
buddhakoṭīśatāni bahūni buddhakoṭī○sahasrāṇi bahūni buddha-
koṭīśatasaha(s)rāṇi bahū buddhakoṭīniyutaśatasahasrāṇi ābhāsam
ā(g). ∥∥

[29r6] ∥∥ audārikadarśanena prañidhānabalena ca | sa tāṃs
tathāgatān arhataḥ samyaksambuddhān dṛṣṭvā udā○rādhyāśa-
tāyatayā⁶⁵) satkaroti gurukaroti mānayatī pūjayati cīvarapīṇḍa-
pātasāyanāsanaglanapra○tya<ya>bhaiṣajyapariṣkāraīś ca pratipāda-
yati bodhisatvasukhopadhānaṃ copasamharati saṃghaga .. ∥∥

[29r7] ∥∥ ..(ka)roti tāni ca kuśalamūlāny anuttarāyāṃ

64) ābhāsam] A^{pc} (The syllable ‘ā’ is inserted between 5th and 6th lines
by the scribe himself), bhāsam A^{ac}

65) °ādhyāśayatayā] A^{pc}, °ādhyāśayatayā A^{ac}

samyaksambodhau pariṇāmayati tāṃś ca tathāgatāOn arhataḥ
 sammyaksambuddhān paryyupāste teṣāṃ ca sakāśād gaurava-
 citrikāreṇa satkṛtya dharmmadeśanāṃ śṛṇoti udgrhṇāOti dhārayati
 śrutvā ca yathāvat samāpattipraj(ñ)āj(ñ)ānāloke(n). p. y. j. .e .. .i ..
 ///

[29v1] /// sa bhūyasyā mātrayā tathāgatadharmmakoṣaṃ prāpnoti
 tasyāsyā(m a)bh(i)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Osyā
 bodhisatvasya anekāni kalpaśatāni tāni ca kuśalamūlāni bhūyasyā
 mātrayottaptaprabhāsvaratarāṇi bhavaṃti 366) O anekāni kalpaśatāni
 anekāni kalpasahasrāṇ(i) an.kān(i) (kalpaśata)r. ///

[29v2] /// (n)yutaśatasahasrāṇi anekāḥ kalpakoṭiḥ anekāni
 kalpakoṭīśatāni | anekāni kalpakoṭiOśahasrāṇi anekāni kalpakoṭīśata-
 sahasrāṇi anekāni kalpakoṭīniyutaśatasahasrāṇi tāni kuśalamūlāni
 bhūyasyā mātrayottaptaprabhāsvaratarāṇi bhavaṃti tad yathāpi
 nāma bhavaṃto jina(p)u(t)r. ///

[29v3] /// j.tarūpaṃ vaiḍūryyamṛṣṭaṃ bhūyasyā mātrayottapta-
 prabhāsvaratarāṃ bhavati evam eva bhavanto jinaputrā O
 bodhisatvasyāsyāṃ abhi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a tāni kuśalamūlāny upāyaprajñāñānavicāritāOni
 bhūyasyā mātrayottaptaprabhāsvaratarāṇi bhavaṃti bhūyo bhūyaś
 ca praśamām asaṃhāryatāṃ gaccha(ṃ)ti ///

[29v4] (t)ad yathāpi nāma bhavanto jinaputrāś candraprabhā
 satvāśayāṃś ca prahlādayati asaṃhāryā ca bhavati catasṛObhīr
 vātamaṇḍalībhir evam eva bhavaṃto jinaputrā bodhisatvasyāsyāṃ
 abhi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a O tāni
 kuśalamūlāny anekesaṃ satvakoṭīnayutaśatasahasrāṇāṃ kleśajvalāḥ
 praśamayanti prahlādaya(n).i ///

[29v5] asaṃhāryyāṇi ca bhavanti caturbhir mmārapathāpacārīḥ
 tasya daśabhyaḥ pāramitābhyaḥ prajñāpāramitātirikatamā O
 bhavati na ca pariśeṣāsu na samudāgacchati yathābalaṃ
 yathābhajamānam iyaṃ bhavaṃto jinaputrāḥ bodhisatvasyābhiO
 mukhī śa nāma⁶⁷⁾ śaṣṭhī bodhisatvabhūmiḥ samāsanirdeśato

66) The meaning of this number that might indicate 3v is yet to be understood.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 + \\\

[29v6] sunirmmito bhavati devarājaḥ kṛtī prabhuḥ śakto bhavyaḥ
pratibalaḥ satvānām adhimānapratiprasrambhaṇā○ya asaṃhāryyaś
ca bhavati sarvvaśrāvaka-paripṛcchāyāṃ ku* <śa>laḥ⁶⁷⁾ satvāni
pratityasatpāde avatārayituṃ yac .a (k) iñcit ka○mmārabhate
dānena vā priyavadyatayā vā arthakriyayā vā samānārtha .. t. t.
(sa)rv.m a.i \\\

[29v7] hitaṃ buddhamanasikāraih dharmmamanasikāraih
avaivarttika(s).(ṃ)(gh).manasikā○.ai + .odhisatvamanasikāraih
vi++odhisatva(caryyāmanasikāraih pāramit). .. (s)ikāraih bhūmi-
manasi○kāraih balamanasikāraih vaiśāradyanasikāraih āveṇika-
buddhadharmmamanasikā.(ai) \\\

[30r1] \\\ (vat) sa.vv.kāravar.petasasa.vvajñajñānamanasikāraih
kim iti sarvvasatvānām agryō bhaveyaṃ śreṣṭho jyeṣṭhaḥ ○ varaḥ
pravaraḥ⁶⁹⁾ uttamo nuttamaḥ nāyako vināyakaḥ pariṇāyakaḥ yāvāt
sarvvajñajñānapratīsarāṇo bhaveya○m iti ākāṃkṣamāṇaś ca
tathārūpaṃ vīryam ārabhate | yathārūpeṇa v..yy.(r).(bh).(ṇa) (ek).
.ś. \\\

[30r2] (m)uhūrttena samādhikoṭīśatasahasraṇ ca pratilabhate
samādhipyadyate ca | buddhakoṭīśatasahasraṇ ca paśyati | ○ teṣāṃ
cādhiṣṭhānaṃ saṃjñānīte lokakadhātukoṭīśatasahasraṃ * <ca>
kampayati kṣetrakoṭīśatasahasraṃ cākṛmāti lokadhā○tukoṭī-
śatasahasraṃ cāvabhāsayati satvakoṭīśatasahasraṇ ca paripācayati
kalpakoṭī \\\

[30r3] hasraṇ ca tiṣṭhati | kalpakoṭīśatasahasraṃ ca pūrvvā-
ntāparāntataḥ praviśati dharmmamukhakoṭīśatasahasraṃ ○ ca
pravacinoti kāyakoṭīśatasahasraṃ cādarśayati kāyaṃ kāyaṇ ca
bodhisatvakoṭīśatasahasraparivāram ā○darśayati tata uttare
praṇidhānabalikā bodhisatvāḥ praṇidhānavaiśeṣikatayā vikurvanti ..
\\\

[30r4] na sukarā saṃkhyā karttuṃ kāyasya vā prabhāyā vā

67) nāma] A^{pc}, śanāma A^{ac}

68) kuśalaḥ] A^{pc}, kulaḥ A^{ac}

69) pravaraḥ] A^{pc}, prāvaraḥ A^{ac}

rdher vvā cakṣuṣo vā gocarasya vā svarasya vā caryyāyā vā ○
 vyūhasya vā adhiṣṭhānasya vā adhimukter vvā abhisamṣkāraṇām
 vā yāvad etāvadbhir api kalpakotīnayutaśatasaha○srair iti ❀
 abhimukhī nāma ṣaṣṭhī bodhisatvabhūmiḥ ❀

IV.2. MS B (= NGMPP A 38/7)

[31v6] tasyaivaṃ daśākāraṃ =○ pratītyasamutpādaṃ pratyavekṣamāṇasya nirātmato nisatvato nijīvato niḥpudgalataḥ kāraka○ vedakarहितataḥ asvāmikataḥ hetupratyayādhīnataḥ svabhāva-sūnyataḥ vivi

[32r1] ktaḥ asvabhāvataś ca | prakṛtyā pratyavekṣamāṇasya sūnyatāvimokṣamukham ājātaṃ ○ bhavati | tasyaiśāṃ bhāvāṃgānām svabhāvanirodhāyamtavimokṣapratyupasthānato na kiṃcid dharmanimittaṃ○m utpadyate | ato syānimittaṃ 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tasyaivaṃ sūnyatānīmi

[32r2] ttam avatīrṇṇasya na kaścid abhilāṣa utpadyate 'nyatra mahākaruṇāpūrvakāṃ satvapa○ripācanād eva yasyāpraṇihitavimokṣamukham ājātaṃ bhavati | sa imāni trīṇi vimokṣamukhāni ○ bhāvayann ātmavarajñāpagataḥ kārakavedakasamjñāpagato bhāva-bhāvasamjñāpagato

[32r3] bhūsyā mātrayā mahākaruṇāpuraskṛta prayujyate | apariniṣpatāṃ bodhyamgānām ○ pariniṣpattaye tasyaivaṃ bhavati saṃyogā saṃskṛtaṃ pravarttate | viśāmyogānupravarttate | sāmāgryā saṃskṛtaṃ ○ pravarttate viśāmagryā na pravarttate | hata dharmam eva bahudoṣaduṣtasamskṛtaṃ viditvā=

[32r4] sya saṃyogasyāsyās va sāmāgryā vyavacchedaṃ kariṣyāmo na cānyatopagamaṃ saṃskāraṇām ○ abhigamiṣyāmaḥ satvapariṣācānāyāiḥ evam asya bhavato jīnaputrāḥ saṃskāragataṃ bahudoṣadu○ṣṭaṃ svabhāvarahitam anutpannāniruddhaṃ prakṛtyā pratyavekṣamāṇasya mahākaruṇābhi

[32r5] nirhārataś ca satvakāyo nutsargataś cāsaṃgajñānābhimuko nāma pāramitāvihā=○ra āmukhībhavaty avabhāsayogena esa evaṃ

jñānasamanvāgataḥ prajñāpāramitāvihāravabhāṣito⁷⁰⁾ ○ bodhyaṃ-
gāhārakāṃś ca pratyayān upasaṃharati | na ca saṃskṛtasamvā-
sena savasati sva

[32r6] bhāvopasamaṃ ca saṃskārāṇāṃ pratyavekṣate | na ca
tatṛavatiṣṭhate bodhyaṃgāparipūri=○tatvāt asyāsyām abhīmu-
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āvātaraśūnyatā ca
nāma samā○dhir ājāyate | svabhāvasūnyatā ca paramārthaśūnyatā
ca paramaśūnyatā ca mahāśū

[32v1] nyatā ca | samprayogaśūnyatā ca anirhāraśūnyatā ca |
yathāvadavikalpaśūnya○tā ca sāpekṣaśūnyatā ca vinirbhogaśūnyatā
ca nāma samādhir ājāyate || tasyaivaṃpramukhāni daśa=○
śūnyatāsamādhimukhaśatasahasrāṇāmukhībhavanti | evam ānimitta-
samādhimukha

[32v2] śatasahasrāṇi apraṇihitamukhaśatasamādhimukhaśata-
sahasrāṇy āmukhībhava○nti | tasya bhūyasyā mātrayā-m-abhi-
mukhya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ābhedyaśayatā
pari=○pūryate | niyatāśayatā ca kalyāṇāśayatā ca gaṃbhirāśayatā
ca apratyudāvartyā

[32v3] śayatā⁷¹⁾ ca | apratipraśabdhyāśayatā ca vimalāśayatā ca
anamtāśayatā ca jñā=○nābhilāśayatā ca | upāyaprajñāsapra-
yogaśayatā ca | paripūryate tasyaite daśa bodhisatvāśaya⁷²⁾ ○
syānugatā bhavati tathāgatabodhau apratyudāvarttanīyavīryaś ca
bhavati | sarvaparapra

[32v4] vādibhiḥ samavasṛtaś ca bhavati | jñānabhūmiṃ
vinivṛttaś ca bhavati | śrāvākapratye=○kabuddhabhūmibhyāṃ
ekāmtikasya bhavati | buddhajñānābhīmukhatāyāṃ susaṃhāryaś ca
bhavati | sarvamāra=○kleśasamudācāraiḥ supratīṣṭhitaś ca |
bodhisatvajñānalokatāyāṃ suparibhāvi=

[32v5] taś ca bhavati | śūnyatānimittāpraṇihitadharmasamudā-
cāraiḥ saṃprayuktaś ca bhava○ty upāyaprajñāvicāraiḥ vyakīrṇaś
ca bhavati | bodhipakṣikadharmābhīnirhāraiḥ⁷³⁾ tasyāsyām abhīmu=

70) °āvabhāṣito] B^{DC}, °āvabhāṣite B^{ac}

71) °vartyā] B^{DC}, °vartyā B^{ac}

72) °āśayā B^{DC}, °āśaya B^{ac}

O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a prajñāpāra-
mitāvihāra atiriktatayā

[32v6] jāto bhavati | tikṣṇa cānulomikī tṛtīyā kṣāṃtir eṣāṃ
dharmāṇāṃ yathāvad analoṃmatayā-n-avilomatayā tasyāsyām
abhi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a bahavo
buddhā⁷⁴⁾ ○ ābhāsam āgacchamty audārikadarśanena praṇidhāna-
balena ca bahūni buddhaśatāni ba

[33r1] hūni buddhasahasrāṇi bahūni buddhaśatasahasrāṇi bahūni
buddhaniyutaśatasahasrāṇi ba○hvo buddhakoṭyaḥ bahūni buddha-
koṭīśatāni bahūni buddhakoṭīśahasrāṇi bahūni buddhakoṭīśata-
sahasrāṇi ○ bahūni buddhakoṭīniyutaśatasahasrāṇi ābhāsam
āgacchamty audārikadarśana praṇidhā

[33r2] nabalena ca sa tāṃs tathāgatān arhataḥ samyak-
sambuddhāṃ dṛṣtvā udārādhyāśayatā ca satkaroti ○ gurukaroti
mānayati pūjayati cīvarapiṇḍapātaśayanāśanāglānapratyayabhaiṣa-
jyapariṣkāraiś ca prati○pādayati | bodhisatvasukhopadhānaṃ
copasaṃharati | saṃghagaṇasaṃmānanāṃ ca karoti=

[33r3] tāni ca kuśalamūlāny anuttarāyāṃ samyaksambodhau
pariṇamayati tāṃs ca tathāgatān a○jñātaḥ samyaksambuddhāṃ
paryupāste teṣāṃ ca śakāśād gauravacitrikāreṇa satkṛtya
dharmadeśanāṃ śṛṇoty u=○dgrhṇāti dhārayati śrutvā ca yathāvat
samāpattiprajñāñānāvalokatayā prayujyate pra

[33r4] tipattīś cādharayeti | sa bhūyasyā mātrayā
tathāgatadharmakośaprāpto bhavati | tasyā=○syām abhi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a anekāni kalpaśatāni
kuśalamūlāni bhūya○syā mātrayottaptaprabhāsvaratarāṇi bhavaṃti |
anekāni kalpasahasrāṇy anekāni ka

[33r5] lpaśatasahasrāṇy anekāni kalpaniyutaśatasahasrāṇi anekāḥ
kalpakoṭyaḥ anekāni kalpakoṭīśatāni anekāni kalpakoṭīśahasrāṇi
anekāni kalpakoṭīśatasahasrā○ṇi anekāni kalpakoṭīniyutaśata-
sahasrāṇi tāni kuśalamūlāni bhūyasyā mā

73) °ābhinirhāraiḥ] B^{pc}, °ābhinirhāreḥ] B^{ac}

74) buddhā] B^{pc}, buddha] B^{ac}

[33r6] trayottaptaprabhāsvarāṇi⁷⁵⁾ bhavaṃti | tad yathāpi nāma bhavaṃto jīnaputrā sad eva jātarū=○paṃ vaidūryapariprṣṭhaṃ bhūyasyā mātryottaptaprabhāsvaratarāṃ bhavati | evam eva bhavaṃto jīnaputrā bodhisatvasyāṃ abhi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tāni kuśalamūlāni upāyaprajñā

[33v1] vidāritāni bhūyasyā mātrayottaptaprabhāsvaratarāṇi bhavaṃti bhūya bhūyaś ca praśavā=○samhāryatāṃ gacchanti | tad yathāpi nāma bhavanto jīnaputrās candrāvabhā satvāśrayāṃś ca prahlādany asahā=○ryā ca bhavati catasṛbhir vātamaṇḍalibhiḥ evam eva bhavaṃto jīnaputrās tasyāṃ abhi

[33v2] mukhyāṃ bodhisatvabhūmau sthitasya bodhisatvasya tāni kuśalamūlāni anekeshāṃ satva=○koṭṭinīyutaśatasahasrāṇāṃ kleśajvālā praśamayanti prahlādāyanti asaṃhāryāṇi ca bhavanti | caturbhir⁷⁶⁾ mā=○rapathopacāraiḥ⁷⁷⁾ tasya daśabhyāḥ pāramitābhyāḥ prajñāpāramitātirikatatamā bhava

[33v3] ti na ca pariśeṣāsu na samudāgacchti | yathābalaṃ yathābhajamānam iyaṃ bhavaṃto jī=○naputrā bodhisatvasyā=○m-abhimu<khī nāma ṣaṣṭhamī bodhisatvabhūmiḥ samāsanirdeśato yasyāṃ pratiṣṭhito bodhisatvo bhūyastvena sunirmīto bhavati | devarāja kṛtī prabhūḥ satvānām abhimanapratipraśrabdhāḥ ye susaṃhāryāś ca bhavati | sarvaśrāvaka>pariprṣṭhāyāṃ kuśalāḥ satvāṃ pratīyasamutpādāṃ avataraṃtīnimittāṃ ya=○ca kiṃcīt karmārabhate dānena cāpriyavadyatayā vā arthakriyayā vā manasikāraiḥ pā⁷⁸⁾

[33v4] ##### samānārthatayā vā tat sarvaṃ avirahitaṃ buddhamanasikāraiḥ⁷⁹⁾ dharmā=○manasikāraiḥ saṃghamanasikāraiḥ bodhisatvamanasikāraiḥ bodhisatvacaryāmanasikāraiḥ pārami=○tāmanasikāraiḥ bhūmīmanasikāraiḥ balamanasikāraiḥ vaiśāradya-manasikāraiḥ

75) °ottaptaprabhāsvarāṇi B^{bc}, °āttaptaprabhāsvarāṇi B^{ac}

76) caturbhir] B^{bc}, catubhir B^{ac}

77) mārapathopacāraiḥ B^{bc}, marapathopacāraiḥ B^{ac}

78) pā] B^{bc}, pa B^{ac}

79) °manasikāraiḥ] B^{bc}, °manasikāreḥ B^{ac}

[33v5] aṅeṅikabuddhadharmamanasikāraiḥ yāvat sarvākāvaropetasarvajñajñānāmanasikā○raiḥ⁸⁰⁾ kim iti sarvasatvānām yasyā bhaveyaṃ śreṣṭho jyeṣṭhaḥ varaḥ pravaraḥ uttamo nuttamaḥ nāyako vināya○kaḥ pariṇāyakaḥ yāvat sarvajñajñānapratīsarāṇo bhaveyam iti ākāṅkṣas ca tathā

[33v6] rūpaṃ vīryaṃ ārabhate yathārūpeṇa vīryāraṃbheṇa ekakṣaṇalavamuhūrttena samādhikoṭī○śatasahasraṃ⁸¹⁾ ca pratīlabhate samāpadyate ca buddhakoṭīśatasahasraṃ ca paśyati | teṣāṃ cādhiṣṭhāna saṃjānīte ○ lokakadhātukoṭīśatasahasraṃ ca kampaṃyati | kṣetrakoṭīśatasahasraṃ cākramati | lo=

[34r1] kadhātukoṭīśatasahasraṃ ca paripācayati satvakoṭīśatasahasraṃ ca paripācayati kalpa○koṭīśatasahasraṃ ca tiṣṭhati kalpakoṭīśatasahasraṃ ca pūrvāntāparāntataḥ⁸²⁾ praviśati dharmamukhakoṭīśa○tasahasraṃ ca pravīcinoti kāyakoṭīśatasahasraṃ cādarśayati | kāyaṃ kāyaṃ ca bodhisatva

[34r2] koṭīśatasahasraṃ parivārayādarśayati | tataḥ uttare praṇidhānabalikā bodhisatvāḥ pra=○nidhānavaiśaiśikatayā vikurvaṃti⁸³⁾ | yeṣāṃ na sukarā saṃkhyā kartu kāmasya vā prabhāyā vā ṛddher vā cakṣuṣo vā ○ gocarasya vā svarasya vā caryāyā vā vyūhasya vā adhiṣṭhānasya vā adhimukter vā abhisamṣkā

[34r3] rāṇāṃ vā yāvad etāvadbhir api kalpakoṭīnayutaśatasahasrair iti || ○ || abhimu=○khī nāma ṣaṣṭhī bodhisatvabhūmiḥ ||

<<Corrigenda>>

이영진[2014]

- p. 34 MS A 26r5 : a#tighan → apratighan
p. 37 MS A 28r2 : pratibhā○gataḥ → pravibhā○gataḥ

80) °manasikāraiḥ] B^{pc}, °manasikaraiḥ B^{ac}

81) °koṭī] B^{pc}, °koṭā B^{ac}

82) °āparāntataḥ] B^{pc}, °āparāntātaḥ B^{ac}

83) vikurvaṃti] B^{pc}, vikuvaṃti B^{ac}

약호 및 참고문헌

- A : *Daśabhūmikasūtram* NGMPP(Nepal-German Manuscript Preservation Project) Reel No. A39/13 (37 folios) + A38/5 (12 folios)
- B : *Daśabhūmikasūtram* NGMPP Reel No. A38/7 (42 folios)
- C : *Daśabhūmiśvaramahāyanasūtram* NGMPP Reel No. A 114/4
- Ch[B] : 『大方廣佛華嚴經』 卷23-27(『大正藏』9, pp.542上1-578上4)
- Ch[Dh] : 『漸備一切智德經』(『大正藏』10, pp.458上17-497中17)
- Ch[DV] : 『十地經論』(『大正藏』26, pp.123中16-203中2)
- Ch[K] : 『十住經』(『大正藏』10, pp.497下1-535上20)
- Ch[Śdh] : 『佛說』十地經經』(『大正藏』10, pp.535上24-457下16)
- Ch[Śn] : 『大方廣佛華嚴經』 卷34-39(『大正藏』10, pp.178中26-210下24)
- D : *Daśabhūmiśvaramahāyanasūtram* NGMPP Reel No. A 114/5
- E : *Daśabhūmiśvaramahāyanasūtram* NGMPP Reel No. A 114/7
- F : *Daśabhūmiśvaramahāyanasūtram* NGMPP Reel No. A 114/9
- K : *Daśabhūmiśvaro nāma Mahāyānasūtram* ed. Kondō, Ryūkō., 3rd Kyoto: Rinsen Book Co., 1983)
- P : De la Vallée Poussin, Louis. *Bouddhisme: Etudes et Materiaux: Theorie des Douze Causes*, Gand/London, 1913, pp. 115-120.
- R : Rahder, J. *Daśabhūmikasūtra et Bodhisattvabhūmi- Chapitres Vihāra et Bhūmi*, Paris/ Louvain: Geuthner/ J.B. ISTAS, 1926.
- S : *‘phags pa sa bcu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Stog Kanjur[TBRC version], *mdo sde, ga* 31b2-151b2 (vol. 54)

- Tib[DV]: *sa bcu pa'i rnam par bshad pa*, Derge Tanjur[TBRC]
mdo 'grel, ngi 103b1-266a7.
- Tib[mdo]: *'phags pa sa bcu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 Tib[Phal]: *'phags pa sangs rgyas 'phal po che zhes bya ba shin tu*
rgyas pa chen po'i mdo, Derge Kanjur[TBRC version],
Phal chen, kha 166b5-283b7
- Z : *'phags pa sa bcu pa zhes bya ba theg pa chen po'i mdo*,
Shey Kanjur[TBRC version] *mdo sde, ga* 32a4-156b7
(vol.50).

이영진

- [2007] 『공성기술(空性記述)의 두 형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아리아 비록띠세나의 현관장엄론에 대한
주석(*Abhisamayālarīkāraṅgī*) 중 “수행의 그릇, 인식대상,
목표(*pratipatter ādhārāmbanoddesāh*)”장에 관한 역주』,
『불교학리뷰』 pp. 143-190.
- [2014] 『『십지경』의 가장 오래된 두 네팔 산스크리트 사본의
전사(轉寫)－「현전지」(I)』, 『불교학연구』 제39호, pp.
7-55

전재성

- [2013] 『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

大竹 晋

- [2005] 『十地經論 I』, 東京: 大藏出版.
- [2006] 『十地經論 II』, 東京: 大藏出版..

Apple, James B.

- [2008] *Stairway to Nirvāna: A Study of the Twenty Samghas*
Based on the Works of Tsong Kha P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endall, Cecil.

- [1883] *Catalogue of the Buddhist Sanskrit manuscripts in the*
University Library, Cambridge Univ. Press.

Dutt, Nalinaksa

[1931] *Bodhisattva-prātimokṣa-sūtram*, Calcutta Oriental Press.

Falk, Harry and Karashima Seishi

[2012] “A first-century *Prajñāpāramitā* manuscript from Gandhara - parivarta 1(Texts from the Split Collection 1)”, *ARIRIAB* XV, pp.19-61.

Jaini, Padmanabh S.

[1979] *Sāratamā : A pañjikā on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Patna : Kashi Prasad Jayaswal Research Institute.

Kale, M. R.

[2007 reprint: 1972] *A Higher Sanskrit Grammar for the use of school and college students*, Delhi: Motilal Banarsidas.

Karashima Seishi

[2011] *A Critical Edition of LOKAṢEMA's Translation of the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道行般若經校注 Bibliotheca Philologica et Philosophica Buddhica*, 12, Tokyo :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dvanced Buddhology, Soka University.

Kimura Takayasu

[2007]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I-1, Tokyo : Sabkibo Busshorin Publishing.

Matsuda Kazunobu.

[1996] *Two Sanskrit manuscripts of the Daśabhūmikāsūtra preserved at the National Archives, Kathmandu*, Tokyo: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for Unesco.

Pensa, Corrado.

[1967] *L'Abhisamayālaṅkāravṛtti di Ārya Vimuktisena. Primo Abhisamaya. Testo e note critiche*, Serie Orientale Roma no. 37,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Mitra, Rājendralāla

[1888] *Aṣṭasāhasrikā, A collection of Discourses on the*

Metaphysics of the Mahāyāna school of Buddhists, now first edited from Nepalese Sanskrit MSS., Baptist Mission Press.

Sander, Lore

[2007] “Confusion of Terms and Terms of Confusion in Indian Palaeography”, Karin Preisendanz, ed., *Expanding and Merging Horizons: Contributions to South Asian and Cross-Cultural Studies in Commemoration of Wilhelm Halbfass*, Vienn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pp. 121–139.

Schmithausen, Lambert

[1977] Text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m 1. Kapitel der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Prajñāpāramitā and Related Systems: Studies in honor of Edward Conze* (ed. Lewis Lancaster), Berkeley Buddhist Studies Series pp. 35–80

Siderits, Mark and Katsura Shōryū

[2013] *Nāgārjuna’s Middle Way Mūlamadhyamakakārikā*, Boston: Wisdom publication.

Skorupski, Tadeusz.

[1983] *The Sarvadurgatipariśodhana Tantra, Elimination of All Evil Destinies: Sanskrit and Tibetan Texts with Introduction, English Translation and Notes*, Motilal Banarsidass.

Vaidya, P.L.

[1960] *Gaṇḍavyūhasūtram, Buddhist Sanskrit Texts* No. 5, Darbhanga: The Mithila Institute.

[1964] *Mañjuśrīmūlakalpa, Mahāyānasūtrasaṃgraha, part 2*, Darbhanga: The Mithila Institute., pp.427~430

Wogihara, U.

[1973(2nd): 1932–35] *Abhisamayālamkāralokā*

Prajñāpāramitāvyaḅhyā The work of Haribhdara, Sankibo

Buddhist Book store.

YE Shaoyong.

- [2008] “A Paleographical Study of the Manuscripts of the *Mūlamadhyamakakārikā* and Buddhapālita’s Commentary”, *ARIRIAB* vol. XI, pp. 153–175.

Yuyama Akira

- [1996] “A Critical Survey of Philological Studies of the *Daśabhūmikasūtra*”, *Indica et Tibetica Verlag Band 28 Suhrlekhāh Festgabe für Helmut Eimer*, Swisttal-Oldendorf, pp. 263–282.

Abstract

A Transcription of the Two Oldest Sanskrit Manuscripts of *Daśabhūmikasūtram* in Nepal: the 6th *abhimukhī nāma bodhisattvabhūmiḥ* (Part II)

Lee, Young Jin

Geumgang Center for Buddhist Studies

As the title of this article shows, it is a follow-up of the previous paper, ‘A Transcription of the Two Oldest Sanskrit Manuscripts of *Daśabhūmikasūtram* in Nepal: the 6th *abhimukhī nāma bodhisattvabhūmiḥ* (Part I)’, which includes a transcription of the 6th Bodhisattva’s stage of MS A and MS B up to the investigation of the Twelve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with 10 aspects. Chapter 3 of this paper is comprised of a transcription of the rest part, from the *trayaḥ samādhayaḥ* beginning with *śūnyatāsamādhi* up to the end of this stage.

In the second chapter, I tried to show how the compiler(s) or editor(s) of *Daśabhūmikasūtram* had reconciled the two disparate concepts, *i.e.*, the emptiness (*śūnyatā*) and the dependent origination (*pratītyasamutpāda*); to be exact, how they had assured readers or audiences that one can attain the three kinds of *samādhis* through the contemplation of the 10 kinds of the Twelve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t the core of this process, there would be the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non-existence [of the intrinsic nature of the twelve links] (*dvādaśānām aṅgānām svabhāva*)-*abhāvānulomaparīkṣā*), which we can hardly notice only consulting the editions based on the later Nepalese manuscripts.

In the third chapter, I established the fact that the oldest manuscript does not always have the oldest contents by providing terms added only in MS A that seem to be influenced by commentaries such as *Daśabhūmika-vyākhyānam* by Vasubandhu. Among these terms, *avaivarttika* (irreversible), *sahāya* (companion), and *vipula* (vast) – which modify or qualify the *saṅga*, *bodhisattva*, and *bodhisattvacaryā* respectively – are unique in that all of them do not always appear together in other *bhūmis* of MS A; None, one, two, or all of them appear in the 5th·8th(?) *bhūmi*, the 1st *bhūmi*, the 4th·6th *bhūmi*, or the 2nd·3rd·7th·9th(?) *bhūmi* in order. This irregularity would indicate the possibility that these terms had been originally marginal or interlinear notes and they were inserted into and transformed the main text by mistake or intentionally.

Key Words :

Daśabhūmikasūtram, abhimukhī, transcription, Sanskrit Manuscript, Dependent Origination, Three kinds of *samādhis*